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3 5 1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340호 [루계 제24753호] 주제103(2014) 년 12월 6일(토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김 정 은 동 지 께 서 경 애 하 는 5월9일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월 9일 메 기 공 장 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부장 한광상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를 공장의 일군들이 맞 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 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 주시며 어제 시찰한 인민 군군부대의 지휘관들로 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공급체계에 따라 이 공장에서 생산 한 메기들을 정상적으 로 공급받고있으며 군 인들이 정말 좋아한다 는 보고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장군님의 유훈교시를 철저히 판철하고있는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공장 말씀하시였다. 은 메기양어를 친히 발기하시고 몸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공장 잘해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공장의 의 메기를 꽝꽝 생산해내고있는 비결은 공장터전도 잡아주시였으며 종자확보 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들을 잘 이름을 5월9일메기공장으로 부르 알깨우기로부터 새끼고기키우기,살찌 양어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로부터 양어를 파학화,집약화하기 먹고 잘 살게 할수 있을가 하는 생각 자고 말씀하시였다. 일뗘선 우리 나라 메기양어의 원종장, 슴배여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장군님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장군님께서 남기신 애국유산이라고 의 헌신과 로고를 순간도 잊지 말아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결한 재력이 대단하다고 말씀하시였다. 말씀하시였다.

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메기를 현지지도표식비를 건립하자고 하시

종업원들을 만나보고싶어 찾아왔다고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고 기뻐하시던 면서 몸소 그 자리까지 잡아주시였 들을 보시고 물 절반,물고기 절반이라 때 물고기기르기에서 커다란 성과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떠오른다고 으며 장군님께서 처음으로 찾아오시 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적은 인원과 제 겨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말씀

한다고 하시였다.

찾으시여 이제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전하는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뿐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위해서라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알깨우 과학화,집약화한데 있다고 하시였다.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 그 어떤 험한 길도 다 걸으신 위대한 기호동,메기호동 등 여러굣을 돌아 현대적인 양어설비들이 그쯘하게 갖 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피심속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곳곳마다에 보시면서 공장의 생산실태와 경영활동 추어져있고 과학적인 생산토대와 풍부 지시하시였다.

실내원형못에서 욱실거리고있는 메기 을 위한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였던 력사의 날을 잊지 말고 일을 한된 생산면적을 가지고 한해에 수백t 하시였다. 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들을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양어사업에서

한 경험을 가지고있는 공장의 생산잠 양어에서도 기본은 종자라고 하시면

과학연구기지를 방불케 하는 산뜻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 고 생활력이 강한 종자들을 많이 키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00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 고 아담한 공장에서 메기를 공업적 서 로력과 생산면적을 늘이지 않고 내고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 년 5월 현대적으로 건설된 메기공장을 을 여러 차례 다녀가신 위대한 방법으로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다음해부터 100t이상의 메기를 더 시였다. 생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

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양어에서 기 본인 물문제와 사료문 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실속있게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 현해야 생산량을 늘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양 어못의 물온도와 수질 을 실시간 감시하고 조 절할수 있게 콤퓨터에 의한 종합조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시 였다.

공장구내에 현대적인 랭동실을 새로 건설하 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공장면모를 일신 시키며 종업원들의 후 방사업에도 깊은 관심 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 9일메기공장의 경험은 양어에서 주체화, 과학 화,집약화를 실현할

경 애 하 는 김정은 통 지 께 서 는

서 먹이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

2 면 으 로 계속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 5월9일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 서

과학적인 사양관리체계를 철저히 요구대로 운영하며 배합사료와 단백질 게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튼튼히 꾸리고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키 발휘하였기때문이라고 거듭 치하 였다. 며 세계적인 양어발전추세와 선진적인 하시였다.

양어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

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르는 곳마다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차이가 있는것은 조건문제가 아니라 5월9일메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 경 애 하 는 김정은 동 지 께 서 는 품들여 일뗘세워주신 메기공장들이 많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들은 우리 나라 메기양어의 개척자, 세워 모든 생산공정들을 기술규정의 5월9일메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 지만 5월9일메기공장에서처럼 생산을 안고 당정책관철에서 자기의 역할과 선구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더 들이 지난 기간 메기양어를 잘할수 정상화하지 못하고있는것은 당에서 양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있는데 있다고 많은 메기를 생산하는것으로써 위대한 먹이, 첨가제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 있은것은 자나깨나 위대한 장군님을 어를 중시하면 양어에 달라붙고 수산 말씀하시였다. 생각하며 양어를 잘할데 대한 당정 을 중시하면 바다로 나가는 일군들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이 출발을 뗐는데 그 판철에서 현저한

양어부문에서는 과학연구기지들을 책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오분열도식사업방법때문이라고 하시 과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 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일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바다에서 물 한날한시에 당정책을 접수하고 다같 고기를 많이 잡는것과 함께 양어사업 들은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뎌 을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는것이 많은 물고기를 보내주시기 위해 심혈을 라고 하시면서 5월9일메기공장의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경험을 불씨로 양어혁명의 불길을 세 대한 감사의 정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차게 타번지게 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에 모든 유훈교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자고 것을 다 바칠 충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말씀하시였다.

경 애 하 는 **김 정 은** 통 지 께 서 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가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들 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

> 5월9일메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 본사정치보도반







훈련장의 병사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 령도사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철저한 반제자주, 끝없는 애국헌신의 력사이며 인민군장병 들과 인민들에 대한 절대적믿음 과 친어버이사랑으로 수놓아진 숭고한 믿음과 사랑의 령도사입 LICE. »

동부전선의 한 령길,

차창밖으로는 봄빛이 한껏 짙은 산천이 흘러가고있었다. 령길은 급하 게 올리뻗고 내리뻗어있었다.

그러한 길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야전차가 달리고있었다.

주체 8 8 (1 9 9 9)년 5월 3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병사들을 찾아 먼길을 이어가고계시였다. 아침을 이 어 달리시는 전선시찰의 길을 점심 시간이 가까와오는 시각에도 줄창 잇 대고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아가시는 곳은 한 인민군부대의 야외훈련장 이였다.

원래는 일정에 없던 길이였다. 그날 부대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양실과 침실, 식당과 일일창고, 자체로 건설한 발전소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군인 들의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

시였다. 바로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의 한 야외훈련장에서 군인들이 훈련을 진행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거기에도 가보자고 하시였다.

그곳까지는 길이 몹시 험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훈련장 의 병사들도 한시바삐 만나보고싶으 시여 지체없이 길을 떠나시였다.

《로동신문》은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현지시찰에 대하여 보도하면 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대군인들이 진행하고있는 야외훈련장에 나가시 여 야식정형을 보시면서 전사들의 생 활을 따뜻이 보살퍼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힘겨운 야외훈 련에 참가한 군인들의 생활에 더 깊 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마마차를 리용하여 언제나 따끈한 더 섣달그믐날까지 걷고걸으시는

밥과 국을 먹이고 부식물도 푸짐히 공급하며 짧은 시간에 식사를 보장 하기 위하여서는 야식장의 자리도 잘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지휘관들 이 전사들의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따뜻이 돌보아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시찰소식은 온 나라 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 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알수 없었 던 이야기가 그날에 깃들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야외훈련장으 로 떠나시려고 할 때였다.

수행성원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어 떻게 아뢰였으면 좋을지 몰라하였 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날에도 안 변군 사평협동농장을 찾아 이른새벽 부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던 것이다. 장군님께서는 그때 관계부문 일군들로부터 논써레질에 리용할수 있는 여러가지 형의 뜨락또르와 관 련한 보고를 받으시자 새벽길로 사 평협동농장을 찾으시였는데 그렇게 하신것은 전선시찰로 맞물려져있는 긴장한 일정에서 시간을 짜내시기 위 해서였다.

수행성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농 장에 나가시는것을 오후로 미루었으 면 하는 의향을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제의를 이런 말씀으로 마다하시였다.

《우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 서 해방시켜주는 중요한 사업인데 순간도 지체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나가봅 AICH. »

이러시고는 어뜩새벽에 농장을 찾 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지 않은 시간을 바쳐가시면서 새로 만든 《천 리마》호뜨락또르와 그밖의 뜨락또르 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으 며 농촌기계화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시였다. 그러신 후 편

이어 전선시찰의 길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인들의 야 외훈련장을 찾으시는 길은 그렇듯 이슬내리던 농장의 새벽길과 잇닿 은 길이였고 년년이 깊은 밤도 이 른새벽도 가리지 않으시고 정초부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차는 험 한 령을 넘어 마침내 야외훈련장에 다달았다. 해는 중천에서 비치고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훈련에 전념 하고있는 병사들을 바라보시면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때 훈련장 한켠에서 구수한 고 기국냄새가 풍겨왔다. 그곳에는 야식 장이 꾸려져있었다. 취사근무성원들 이 점심준비에 바삐 돌아가고있었고 가마마차는 김을 푹푹 피워올리고있 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그곳으로 걸 음을 옮기시였다.

야식장에 이르신 어버이장군님께서 는 조리대에 쌓여있는 부식물들도 살 펴보시고 어떤 음식을 만들고있는가 도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가마마 차로 다가가시였다.

가마마차에서는 열이 확확 풍기고 있었다.

좀 보기요.》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이러시며 가

마마차에 성큼 오르시였다. 화독이 한껏 오른 가마마차에 누 가 어쩔 사이없이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손수 뜨거운 가마뚜껑

을 여시였다. 하가마 또 하가마…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치솟는 김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가마뚜껑을 차

레로 열어보시였다. 어찌할바를 모르던 수행성원들은 그만 눈굽이 젖어들어 손수건을 꺼 내들고말았다.

가마뚜껑을 여시고 가마안을 들여 다보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모습은 마치도 자식들의 끼니를 돌보는 친아버지모습같았다.

어버이장군님의 그 모습을 우러르 는 취사근무성원들의 두볼에서도 뜨거운것이 흐르고있었다. 이윽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가마

마차에서 내려서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부대지휘관들 을 돌아보시면서 야외훈련때는 다른 때보다 더 뜨뜻하게, 푸짐히 잘 먹여 야 한다고 이르시고 이렇게 말씀하 시였다.

군인들이 야외에 나와 훈련하느라 면 여느때와 달리 배가 고플수 있기 때문에 잘 먹이는것과 함께 식사를 제때에 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

싣

동

못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귀중한 우리 전사들이 시장기를 느끼지 않 게 밥을 제시간에 먹게 하려면 야외 취사장을 잘 꾸리고 쌀과 부식물을 충분히 대주어 밥을 제때에 짓도록 해야 한다고 재삼 당부하시였다. 그 러시며 야식장은 꼭 개울가에 설치 하라고 부대지휘판들을 일깨워주시 였다.

가마마차의 국은 펄펄 끓고 뜸을 들인 밥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피여 오르고있었다. 마치도 병사들을 점심 상으로 부르는듯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간을 알아 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서둘 러 걸음을 뗴시며 수행성원들에게 손짓하시였다.

《전사들이 식사할 때가 되였는 데 어서 떠나기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

《우리 전사들이 뷜 끓여먹는가 시였으나 누구도 선뜻 대답을 올리 지 못하였다. 부대에 찾아오시느라 아침식사도

> 건늬시고 점심시간이 되도록 휴식 한 번 못하신 위대한 장군님, 이제 다시 넘어가셔야 할 령길은 얼마나 험하고 이어가실 현지시찰의

> 길은 또 얼마나 멀것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잠시나마 쉬시 기를 바라는 마음, 장군님께 더운밥 과 더운 국도 올리고싶은 심정은 수 행성원들이나 부대지휘관들이나 꼭 같았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사들이 제때에 점심을 먹게 하시

> 려고 어서 떠나자고 재촉하시는것이

얼마후 병사들은 훈련장의 야외식 당에서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밥과 국을 마주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몸소 훈련장에 찾아오시여 가마마차 에까지 오르시면서 육친의 사랑과 정 을 부어주신 더운밥과 국이였다.

그무렵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차는 다시 령길을 넘어가고있었다. 야전차는 달리다가 령중턱에서 멈추어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차에서 내리 시였다.

그날에 길섶에 자리를 정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행성원들과 함께 앉으시였다.

퓓

그것이 전부였다.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점심밥이

앞에 펼쳐졌다. 속에 된장을 둔 줴기밥 몇덩이와 고뿌에 담긴 물,

수행성원들은 가슴이 막 저려들

병사들에게는 그처럼 더운밥과 고기국을 먹이시려 애쓰시면서도? 자신께서는 이렇듯 높고 험한 령의 바람이는 길가에서 물 한고뿌에 줴 기밥을 마주하시는 위대한 장군님! 수행성원들이 눈물이 글썽해 앉았 (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지

《전사들이 야외훈련장에 나와 서도 더운밥과 고기국을 먹고있 는것을 보니 이렇게 길가에 앉아? 접심식사를 해도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

것 같습니다.》 령길의 초목에도 이슬이 맺히는듯 하였고 산봉우리들도 격정에 떠는것 같았다.

수행성원들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주변을 여겨보았다.길가의 나무 한 🤇 그루, 바위 한개도 눈에 새기고 가슴 \ 에 새기였다.

과연 어떤 곳, 어떤 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 하루 사랑의 자욱, 로고의 자욱을 새기시였는가를 잊지 > 말자고. 이날, 이 길을 군인들과 인민 들에게 길이 전하자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후 다시 길을 떠나시였다. 령을 넘고 강을 건느며 야전차는 전선길을 쉬임없이 달리였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전선길 을 이어가시였다.

서쪽 멀리에는 검산령, 마대령이 솟아있고 북쪽 멀리 우중충한 산발 너머엔 차일봉이 메부리를 하늘가로 쳐들고있다.

동부전선의 한 령길, 그 길에 이름은 없어도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오늘도 깊이 새겨져있다. 우리 장군님 한평생 걸으신 전선 길의 또 하나의 상징으로!

H 서

卫 주체 9 5(2006)년 1 2월초 어느날 인민군대의 한 부대를 돌 아보시며 군인들에 대한 후방사업 정형에 대하여 친어버이의 심정으 로 일일이 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콩창고앞에 이르시

여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순간 부대지휘관들의 얼굴마다 에는 죄송스러운 심정이 짙게 어 리였다. 례년에 없이 많이 생산된 フ 콩을 보관하기 위해 부대에서 새 로 꾸려놓은 창고였는데 출입문 도색을 미처 하지 못하다보니 볼 품이 없었던것이다. 어떻게 말씀 을 드리면 좋을지 몰라 잠시 망

일 군 이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 최전연에 위치한 인민군대의 한 중대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위대한 장군님을 초소에 모시게 된 군인 들의 기쁨은 끝이 없었지만 그들 의 머리속에서는 그이께서 그 험 한 눈길로 어떻게 오셨을가 하는 **기** 생각이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중대군인들이 전후사연에 대해 알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초소를 떠나신 후 한 일군이 들 려준 이야기를 통해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실 ━━ 이번에도 시간을 내기 바빴지만

다 른

어느해 5월 적들의 총구가 항 시적으로 노리고있는 최전연의 한 고지에서는 장령들이 병사들 과 전투근무를 교대하는 뜻밖의 일이 펼쳐졌다.바로 여기에는 눈물없이 대할수 없는 가슴뜨거 운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이날 이곳에 위치한 부대를 찾 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귀중 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쳐가시며 병사들의 군사임무수행정형을 료 해하시고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그러다나니 어 느덧 시간은 퍼그나 흘러 점심시 간이 되여오고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간이 있 으면 이 고지우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의 초소를 다 돌

설이던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그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고드리 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시더니 동행 한 일군들에게 이곳 부대지휘관 들이 콩창고문을 도색하지 않아 미안해하는것 같은데 최고사령관 이 관심을 돌리는것은 문이 아니 라 창고안에 병사들이 먹을 콩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병사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넘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은 불덩 이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들려준 사연

다릴것 같아 오늘 새벽 1시가 지 나 잠자리에 누웠다가 4시에 일 어나 이곳으로 떠나왔다고, 밖은 캄캄하고 눈이 많이 내려 길은 험하였지만 최전연초소로 달리는 자신의 마음은 더없이 기쁘고 가벼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 니다.》

일군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군 인들은 좀처럼 자리를 뜰념을 하 지 못하였다.

또다시 험한 령을 넘으시며 전 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실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눈앞 에 어려와서인가 그들의 가슴에 는 뜨거운 눈물이 소리없이 고이 고있었다.

무 교 대

아보고싶은데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 유감이라고 하시였다. 그러 시면서 수행한 장령들에게 최고사령관이 최전연고지우에 올라왔다가 이곳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을 다 만나보지 않고 간다면 그들이 얼마나 섭섭 해하겠는가, 군인들을 한명도 빠짐없이 데려다 만나보고 기념 사진을 찍자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최전연초소에서 장령들과 병사들사이의 류다른 근무교대가 진행되였던것이다. 류다른 근무교대!

정녕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만이 펼칠수 있는 영원불멸할 화폭이였다.

본사기자 정순학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신념은 혁명위업 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며 혁명위업에 모든것 을 다 바쳐 싸우려는 굳은 각오와 의지입니다. 》

우리 장군님 펼 치신 위대한 선군

대 한

시대는 인민군군인 들을 사상과 신념 의 강자들로 키워 냈다. 초도는 신념의 강자들을 키워내신 장군님 이야기도 전하

고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 슴마다에 소중히 자리잡고있다. 어느해 11월말 초도를 찾으 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근엄한 안색으로 남쪽바다가를 오래도

록 바라보시였다. 잠시후 일군들에게 모든 군인 들을 월미도영웅들이 지녔던 숭고한 사상정신으로 무장시켜 야 한다고 강조하신 위대한 의 품인줄 알았다고 심장으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웨치며 한몸이 그대로 육란이 없이 혁명적지조를 꿋꿋이 지킨

령 도 자 이으시였다.

니다. …

보게 하였다.

월미도방위자들이 대중적영 웅주의와 불굴의 희생성을 발휘 할수 있은것은 바로 그들의 가 슴속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 심과 조국은 곧 장군님의 품이 라는 투철한 신념을 간직하고있 었기때문입니다.

월미도영웅전사들의 사상 정신적특질에서 기본핵은 혁명적

수령판과 불타는 조국애입

그이의 말씀은 일군들이 월미

도방위자들의 숭고하고도 투철

한 사상정신세계에 대하여 그려

살아도 그 품속에, 죽어도 그

품속에 언제나 못 잊어 어머니

라 부르는 나의 조국이 장군님

되여 최후순간까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월미도 방위자들,

그이의 가르치심은 인민군대의 사상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변하지 않으며 참대는 불에 타

도 그 곧음을 굽히지 않는다고

하시며 혁명가의 신념에 대한 참

바로 그 드팀없는 신념과 의

뜻밖의 일로 바다에서 표류되

여 적구에 들어갔다가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나어린 병사들을

두고 당을 따르는 충정의 일념

으로 준엄한 역경속에서도 굴함

평

의미를 새겨주신 우리 장군님,

지였다.

언제인가도 백옥은 부서져도 그 빛을 잃지 않고 푸른 소나무

강자, 신념의 강자들의 집단인 인민군대가 혁명의 기둥으로 억 세계 서있기에 사회주의조국은 필승불패이라고 커다란 만족속 에 하시던 우리 장군님 이야기.

위대한 선군령장의 불변의 의지에 따라 조국 앞에 준엄한 시련 이 닥쳐왔던 나날 에도 전군에 힘차

조국의 참된 아들들이라고 하시

며 백절불굴하는 이런 사상의

였다.

는 눈속에 파묻혀도 그 푸름이 신념의 붉은기였다. 믿음직하게 자라날수 있었다.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 으며 우리 혁명무력의 백승의 위력이 있다.

본사기자 리금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여러 나라 국가수반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방 코 크

라 이 왕 국 국 왕 부미볼 아둘리야데즈페하

나는 폐하의 생일과 타이왕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 할것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끊임없는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최 고 인 민 회 의 상 임 위 원 회 위 원 장

윈드후크

나 미 비 아 공 화 국 대 통 령 게 인 고 브 각

주체103(2014)년 12월 5일

나는 최근에 귀국에서 진행된 총선기에서 당신이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으로 선거된것과 관련 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미비아에서의 이번 총선거결과는 당신과 그리고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에 대한 귀국인민의 높은 신뢰와 기대의 증시로 됩니다.

나는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 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옂 남 주체103(2014)년 12월 4일

덕성 탄 광 교 양 을 초급당위원회

에서는 당원들과 탄부들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과 그리움을 안고 석탄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있다.

얼마전 한 채탄중대에 내려 간 초급당일군은 혁명일화 《위대한 어버이의 동상을 모시 지 못한 사연》을 가지고 정치

사업을 진행하였다.

자신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이어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고 조국을 통일하여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해야 할 력사적사명 을 지니고있다고,수령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를 다 실현하 자면 아직도 중대한 과업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위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양보하지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대한 이 야기는 탄부들의 가슴을 격동시 켰다.

모임에서 탄부들은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 수하며 석탄증산성과로 어머니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로농통신원 연전행시였습니다. 그날 한동안 대홍

군인들의 심장에 신념의 붉은기를

> 성스러운 그 기치아래 우리 인 민군장병들은 어떤 난판과 역경 속에서도 신념을 목숨보다 더 귀 중히 여기는 신념의 강자들로

> 바로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믿음직하고 억세계 자 란 인민군군인들의 참모습이 있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조국의 해방을 따라배우고있다 - 왕재 산 혁명 사적 지에서 -본사기자 찍음 전

백두삼천리 얼마전 우리는 새로 개관된 혘

대홍단혁명사적관을 찾았다.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사적을 길이 전하는 대홍단 혁명사적관은 모두 7개 호실로

되여있었다. 참관자들과 함께 혁명사적관 의 1호실에 들어서니 대홍단군 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펼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이 숭엄하게 안겨왔다.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 의 불멸의 혁명사적과 령도 업적이 깃들어있는 대홍단군

위

을 갑자농사의 본보기로, 살기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리기로 결심하고 대홍단군 이 갑자농사에서 전국의 앞장 에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고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주었습 LICH. »

우리는 참판자들과 함께 력사 적인 무산지구전투과정을 보여주 는 2호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영 5 호종합농장(당시)을 창설 해주시고 정전직후부터 1980 년대까지 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혀지지도하신 자료들이 전시되여 있는 3호실을 돌아보았다.

4 호실에서 우리는 강사로부 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난의 시기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제시 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내용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 《주체 8 7(1 9 9 8)년 1 0

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홍 단군5호종합농장유래비(당시) 를 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손길아래 대홍단군종

합농장은 사회주의농촌경리의 본보기농장으로 전변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군당 책임일군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새땅찾기, 방 풍림조성, 농산작업의 기계화를 실현할데 대한 과업수행에서 많 은 성과가 이룩되였다는 보고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오늘 대홍단군에 온것 은 감자농사정형을 알아보고

감자농사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라고 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의 감자농사혁명의 장엄한 포성은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여기 대홍단군에서부터 시작되였다 고 하는 강사의 목소리는 격정 에 젖어있었다.

선군혁명령도사에 찬연한 한 페지를 아로새긴 위대한 장군님 의 그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력사적인 영상사진문헌을 우러 르며 참판자들은 오래도록 걸음 을 떼지 못하였다.

년 10월 새로 건립된 무산지

구전투승리기념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 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강사는 해설을 계속하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혁명사적비뒤면에 새겨넣 은 노래가사 〈대홍단 삼천리〉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습니

다. 답사자들모두가 이곳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또다시 대홍단군을 현지지도하 노래 〈대홍단 삼천리〉를 합창

명 을 적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옛날에는 량반들이 경치좋은 곳에 가서

술을 마시고 하시를 읊군 하였

지만 오늘 우리 인민들은 여기 에 와서 〈대홍단 삼천리〉 와 같은 노래를 부르니 얼마나 좋 은가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 〈꽃피는 대홍단〉 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이름지어주신 서두농장의 홍단이와 제대군인 부부의 행복한 모습도 형상하였 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꽃피 는 대홍단에 홍단이들이 많다는 데 홍단이도 있고 대홍이도 많 아야 한다고 웃으시며 말씀하시

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개척》 편에 제대군인들을 형 상하였는데 아주 좋다고 하시면 서 이제는 대홍단이 천지개벽되 여 수령님의 뜻이 실현되였다고 볼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6호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날에 대홍단군의 여러 단위를

돌아보시는 영상사진문헌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홍암농장과 창평농장을 현지지도 5호실에는 주체 9 1 (2 0 0 2) 하시였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홍암농장 제4작업반의 풍작을 이룬 감자 포전을 돌아보시고 창평농장 제 2 작업반의 감자종자저장고 와 싹틔우기장, 청년학교, 농업 과학기술지식선전실을 다 돌아 보시다나니 어느덧 시간이 퍼그 나 흘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감 자연구소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낮으나 절절하게 이야기하는

아 서 강사의 목소리가 참판자들의 가

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한 일군이 점심시간이 지났 다고,오늘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총비서로 추대되신 5돐이 되는 뜻깊은 날인데 점심식사를 하시고 다음 로정을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런가고 하시며 찬바람부는 창평농장 제3작업 반포전 바람막이숲 공지로 가시 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빙 둘러 앉은 일군들에게 오늘 점심식사 는 감자구이라고, 어서 많이 들라 고 하시면서 손수 구운 감자를 그 들에게 권하시였습니다. 말그대

로 야전식사였습니다.》 뜻깊은 그날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백두산기슭에서 구운 감자로 끼니를 에우시고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빨찌산식현지 지도강행군에 대하여 전하는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판자 들은 끓어오르는 격정으로 눈굽 을 적시였다. …

6호실에서 우리는 주체 9 9 (2010)년 5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다시 대홍단군을 찾아주시였던 그날의 혁명사적 자료들을 보며 진정 우리 장군님 의 한생은 인민을 위하여 바치 신 불같은 한생이였음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였다. 이날 대홍단군 백산돼지목장 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목장구성상태와 종축체계, 먹 이보장 및 수의방역사업과 물거 름생산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이 어 대홍단읍상점과 새로 건설된

대홍단국수집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달마다 고기와 술. 분탕, 엿, 콩기름을 비롯한 식료 품들을 주민세대들에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있는 사실과 대홍단국수 맛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는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대홍단감자가공공장이 종합 적이며 현대적인 감자가공기지 로 전변되였다고 그리도 만족해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 사진문헌을 우러르며 참판자들 은 대홍단군을 살기 좋은 사회 주의리상촌으로 꾸려주시려고 우리 장군님께서 걷고걸으신 헌신의 자욱자욱을 되새기며

눈시울을 적시였다. 7호실에서 천지개벽을 자랑 하는 대홍단군의 전경을 펼쳐보 이는 사판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만이 아니였다. 참판자들 모두가 대홍단군이야말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

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우리 어찌 천년이 가고 만년 이 간들 백두삼천리벌에 위대한 전변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그 업적을 잊을수 있겠는가. 참판자들의 가슴가슴은 뜨거운 격정과 불타 는 맹세로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장군님,저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 하게 받들어 우리 대홍단군을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 로 꾸려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결의가 빛나는 현실로 꽃퍼날것이라는것을 확신 하며 대홍단혁명사적관을 나섰다. 특파기자 전 철 주

라은심동무에

육 강 국 건 설 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체육인들이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 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마음을 버리고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돌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 체육의 비약적인 성과 들을 이야기할 때면 사람들은 누구나 녀자 축구선수들의 위훈부터 꼽는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년간 우리의 국가녀자축구종합팀 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이룩한 성과는 참

청진의 축구소녀와

라은심은 함경북도 경성군 읍에서 김책 제철련합기업소 로동자의 둘째딸로 태여났 다. 아버지를 따라 김책제철련합기업소가 있는 청진으로 이사한 후 청진제 8 인민학 교(당시) 3학년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다.

어머니 장영실녀성의 말에 의하면 딸 3 형제가운데서 라은심은 제일 약했다고 한 다. 그래서 둘째딸이 축구를 하겠다고 할 때 부모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체육을 하도 좋아해서 스케트는 사주었지만 축구공은 사주지 않았다.

하지만 은심은 공차기를 더 즐겨했다. 라은심이 중학교 1 학년에 입학한지 며 칠후 그의 학교로 송평구역청소년체육학교 지도교원이 찾아왔다. 녀자축구종목학생들 을 선발하기 위해서였다.전문가적인 안목 으로 녀학생들을 찬찬히 판찰하던 지도교 원의 눈에 제일먼저 든 학생이 바로 라은 심이였다.

몸은 체소하지만 그 자그마한 체구에서 불처럼 이글거리는 축구선수의 정신적기질 을 지도교원은 알아보았던것이다. 공부도 잘하고 또 소학교시절에 분단위원장, 소년 단위원장이기도 하였던 은심의 총명한 두 뇌와 이악성,깨끗한 정신도덕적품성은 지 도교원의 마음에 흠뻑 들었다.

미래의 국가녀자축구종합팀 주장 라은심 은 이렇게 청소년체육학교 학생으로 선발 되였다.라은심의 지도교원이였던 김경희 동무는 그때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필요한 지표측검을 진행하였는데 30

m달리기속도가 매우 빨라 무척 놀라웠습니 다. 축구선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징표가 바 로 빠른 달리기속도가 아닙니까. 하지만 더 욱 놀라운것은 은심이의 비상한 훈련열의 였습니다.》

며칠간 훈련을 주었는데 라은심의 열의는 남달랐다. 고열이 나는것을 누구에게도 말 하지 않고 그날 배운 기초기술동작을 익히 느라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다가 쓰러진것을 지도교원이 업고 병원으로 가기도 했다. 단순히 축구에 대한 천성적인 소질때문

인가. 어머니의 이야기가 의문을 풀어주었다. 소학교때 구역경기에 참가하여 1등을 하 게 되였을 때 은심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 했다고 한다.

《앞으로 축구를 더 열심히 배워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녀자축구선수가 되여 아버지장군님께 편지를 올리겠어요.》

압 록 강 체 육 단

으로 경탄할만 하다. 제 1 7차 아시아경기대회 녀자축구경기에 서 단연 1위를 쟁취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값높이 내세워 주신 영광의 그 나날과 더불어 우리의 장한 너자축구선수들의 영예는 절정에 올라섰다.

이 용감무쌍한 무적불패팀의 주장 라은 심선수는 새로운 주체 1 0 0년대의 체육사 에 눈부신 폐지를 아로새긴 녀자축구선수 들의 대표자이다.

녀자축구선수영웅

어린 딸의 너무도 엄청난 욕망에 어머니 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작은 심장에 어른보다 더 큰 열망과 자 신심을 품은 은심은 누구보다 더 빨리 달

렸고 더 많은 땀을 흘렸다. 보통소녀들에게서 쉽게 찾아볼수 없는 이 귀중한 마음을 지도교원은 뛰여난 녀자 축구명수가 될수 있는 가장 큰 밑천으로,

첫째가는 기질로 보았던것이다. 지도교원의 신심은 확고했다. 오직 하나 의 열망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리는 은심의 정신력에 불을 달아주면서 그에게 정확한 기초기술을 습득시키기 위

해 지도교원은 열정을 다 바쳤다. 몇해후에는 평양에 있는 어느 한 체육단 감독이 라은심을 찾아 청진까지 내려왔다. 그 역시 전국적인 청소년체육학교 녀자축구 경기를 예리하게 지켜보는 과정에 전도가

기대되는 라은심을 지목하였던것이였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라은심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가정에 딸 3형제뿐이여서 남편은 늘 아들이 없는것을 섭섭해하였습니다. 그 런데 부모도 미처 몰랐던 둘째딸의 재능의 싹을 꽃피워주겠다고 청소년체육학교 지도 교원이며 체육단 감독이 연방 찾아오니 정 말 이 세상은 우리 가정, 우리 딸을 위해 펼쳐져있는듯 한 감격에 눈물을 금할수 없 었습니다.》

체육단 감독에게 김경희지도교원은 은심 이를 잘 키워달라고, 은심이는 꼭 성공할수 있다고 신신당부하였다. 그러면서 은심이 의 마음속에 간직되여있는 소원에 대한 이 야기를 특별히 강조했다.

《꼭 은심이의 소원을 풀어주십시오.》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에서 청소년체육학 교의 훈련장으로, 체육단의 경기장으로 은 심은 계속 옮겨갔다. 나라에서는 가슴속에 큰 열망을 품고 남보다 더 빨리 내달리는 라은심에게 청년녀자축구팀, 국가녀자축구 종합팀의 더 큰 활무대를 펼쳐주었다. 그는

0

집단경기인 축구에서 주장의 역할은 매 우 중요하다. 축구팀의 주장은 경기전술실 현의 핵심, 기수일뿐아니라 11명 선수들 의 정신육체적능력을 하나로 합치고 폭발 시켜주는 불씨이다. 최근년간 우리 국가녀 자축구종합팀 선수들이 세운 혁혁한 위훈 을 론할 때 주장 라은심선수의 활약을 먼

로력영 녀 자 축 구 선 수 이렇게 조선을 대표하는 녀자축구선수가

동

乏

되였다. 라은심선수는 2006년에 말레이시아 에서 열렸던 제 3차 아시아청년녀자축구선 수권대회를 계기로 첫 국제경기에 출전하 여 네꼴을 성공시켜 파문을 일으켰다. 그때 부터 녀자월드컵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 회, 아시아컵녀자축구경기대회, 세계대학 생체육경기대회 등 근 8 0차례의 국제경 기에 참가하여 3 1 개의 꼴을 넣었다. 이 나날 라은심동무는 당과 조국의 사랑속에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로, 조선로동당원 으로 성장하였으며 공훈체육인의 영예를 지니였다.

2007년 아시아청년녀자축구선수권 대회에서 라은심선수는 주장으로 맹활약하 면서 일본팀을 1:0으로 타승한 결승경기 에서 넣은 꼴까지 포함한 네꼴이라는 가장 많은 득점을 성공시키고 우리 청년녀자축 구팀이 단연 선수권을 쟁취하도록 이끌었 을뿐아니라 대회의 최우수선수상,최고득 점자상도 받았다. 당시 한 외신은 《라은심 은 의심할바없이 아시아녀자축구의 희망의 별로 되였다. 》라고 보도하기까지 하였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국가녀자축구종합팀 주장으로 활약하면서 2013년 동아시아 컵녀자축구경기대회와 제 1 7차 아시아경 기대회 녀자축구경기에서 우리 팀이 단연 우승의 영예를 떨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어느해인가 국제경기때 우리 녀자축구선 수들과 이야기를 나눈 남조선선수들이 《돈 안내고도 공부하는가? 돈 안주고도 치료 받는가? 돈없이도 체육선수가 되는가?》 라고 연방 물음표를 던지며 모두 놀랐다는 익화가 있다.

자본주의가치판으로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그렇듯 훌륭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 에서 라은심도 희망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며 인민이 사랑하는 축구선수로 성장하였다.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을 달릴 때부터 오 늘까지 무수한 날과 달들에 언제 한번 돈 걱정같은것을 해본적이 없다. 로동자가정 인 그의 집에서 딸의 장래를 놓고 걱정해 본적도 없었다.

지난 10월 나라에서는 라은심선수에게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를 안겨주었다. 우리의 고마운 사회주의제도 는 청진의 축구소녀를 녀자축구선수영웅으 로 키워주었다.

녀자축구선수들모두가 이렇게 자랐다. 그래서 그들은 당과 인민이 안겨준 《조국 의 장한 딸》이라는 칭호를 제일 귀중히 여 긴다.

λŀ

저 떠올리게 되는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에 대한 국제체육계 의 평에서 늘 첫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칠줄 모르고 달리는 불굴의 투지 와 완강하고 이악한 공격기질이다. 한마디 말로는 쉽게 평가할수 없는 조선녀자축구의 이 고유한 기질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남자들도 견디여내기 헐치 않은 축구훈련 의 높은 강도는 녀자선수들에게 더 큰 육체 적부담을 안겨준다. 처녀들에게 있어서 훈 련의 매일, 매 시각은 자신의 육체적한계와 의 싸움이며 강철의 의지를 벼리는 초강도 단련과정이다. 김광민책임감독은 경기의 승 리는 훈련장에서 마련되여야 한다는 좌우명 을 뼈에 새기고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였으며 훈련에서는 그 어떤

선 구 자 집

싣

웅

사정이나 융화도 허용하지 않았다. 한명의 선수라도 나약해지면 팀전체의 률동이 헝클어지는 축구선수집단의 결사적 인 훈련의 앞장에는 언제나 주장 라은심선 수가 서있었다. 자신을 위해서보다도 팀의 선수들을 위하여 맨 먼저 뛰쳐일어났고 앞 장에서 달렸다.

문지기 홍명희선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장동무의 훈련에 대한 성실성은 우리 들의 본보기였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았지 만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에 참가하면서 높 이 세워진 훈련과제수행에로 팀전체를 불 러일으킨 대오의 기수였습니다.》

강도높은 집체훈련에 이어 자체로 개별 훈련을 진행할 때에도 스스로 다른 선수 들의 1:1돌파훈련상대가 되여주면서 신 심을 북돋아주기도 하고 육체훈련을 할 때 에도 힘있는 구호를 선창하며 백두의 훈 련열풍을 앞장에서 일으켜간 주장 라은심 선수…

선수들이 지쳐 맥을 놓았던 어느날에 있 은 일이다. 새로운 훈련과제는 종합팀생활을 일정하게 한 선수들에게도 힘에 부쳤다.

라은심선수는 당원선수들과 마주앉았다. 《우린 당원들이예요.》

그 시각 라은심선수는 여러해전 너무도 미숙한 처녀축구선수에 불과한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증을 안겨준 믿음에 눈물을 흘리던 그날을 생각하였다. 당생활년한이 제일 많은 주장의 짤막한 말 에 당원선수들은 머리를 숙였다.

《우리가 해내면 다들 신심을 가지고 따 라섴거예요.》

라은심선수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그 를 따라 두주먹을 쥐고 훈련장으로 달려가 는 홍명희, 리예경, 허은별선수를 비롯한 당원선수들의 귀전에는 《당원들은 나를 따 라 앞으로!》라고 부르짖는 주장의 목소리 가 쟁쟁히 울리는듯싶었다.

팀은 또다시 훈련장을 달렸다. 그 앞장에 서는 폭풍을 뚫고 날아가는 용감한 기러기 뗴의 선두기러기마냥 당원 라은심선수가 총알처럼 달리고있었다.

국가종합팀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위정 심선수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올해에 처음으로 국가녀자축구종 합팀에 망라된 말그대로 생둥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팀에 선발되고보니 처음에는 선배선수들을 대하기조차 어려웠 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해도, 휴식을 해도 무엇이나 다 적극적이고 부글부글 끓는것

대 한 이야기 을 좋아하고 한자매처럼 정답게 지내는 그 들의 생활에 대번에 끌려들었습니다.

특히 내가 책임감독동지의 높은 요구성 에 제때에 따라서지 못할 때마다 주장동무 가 함께 훈련장을 달리며 자기들도 종합팀 에 처음 망라되였을 때에 그랬다고,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이 고비를 이겨내자고, 조 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그날 오늘을 옛말삼 아 추억하는 멋이란 어디에 비길데 없는 행 복이라며 힘을 주군 하던 때가 잊혀지지 않 습니다. 이렇게 동지들모두가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제 1 7차 아시아경기대회준비를 위한 훈 련이 한창이던 어느날, 추석을 하루 앞둔 날이였다. 그날 저녁 라은심선수는 식료품 꾸레미를 들고와 김은향선수를 찾았다.

《래일은 추석인데 아버지의 묘에 가지고 가 인사를 올려요.》 김은향선수는 눈물이 글썽해서 주장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불렀다. 《주장동무!》 김은향선수는 굳게 다짐했다.

(아버지, 우리 팀의 승리소식을 기다려주 십시오.)

이렇듯 훈련에서나 생활에서나 언제나 주장으로서의 높은 책임감과 맏언니의 뜨 거운 정으로 집단을 하나로 굳게 단합시키 는데 온넋을 바쳐온 라은심동무의 선구자 적투쟁정신은 제 1 7차 아시아경기대회장 에서 더욱 활화산같이 폭발하였다.

리예경선수는 잊지 못할 위훈의 나날들 을 이렇게 가슴뜨겁게 추억하였다.

《한차례한차례의 경기를 시작하기에 앞 서 주장동무는 이렇게 웨치군 하였습니다. 〈8월의 뜻깊은 경기를 잊지 말자. 우리들 의 경기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고계신 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자!>>>

지난 8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제 1 7차 아시아경기대회 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녀자축구검열경기를 몸소 지도해주시면서 크나큰 믿음을 안겨 주시던 그날은 선수들에게 있어서 정녕 잊 을수 없는 사변적인 날이였다. 선수들이 한 결같이 이야기하다싶이 그날을 계기로 팀 전반에는 신비할 정도로 무서운 힘이 폭발 하기 시작했으며 누구에게라 할것없이 우 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확고한 자신 심이 생겨났던것이다.

《우리들의 경기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고계신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자!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제 1 7차 아시아경기대회장 한복판에서 터친 주장 라은심의 이 격동적인 선동에 심 장으로 화답하고나면 무적필승의 용감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용솟음쳤다. 그 기 상. 그 기백으로 상대팀들을 압도하는 사상 전, 투지전의 포문을 보란듯이 열고 속도 전, 기술전의 위력을 가슴후련히 발휘하군 하였다.

의 료 일 군 들

발맞추어 주장으로서, 공격수로서 누구보 다도 많이 달리면서 상대팀의 방어진을 흔 들었으며 통쾌한 끝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우리 팀의 득점에 유리한 기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을뿐아니라 국제경기경 험이 어린 선수들이 예측하지 못한 경기정 황에 당황해할세라 적극 고무해주기도 하 였다. 상대편방어수들을 둘셋씩 달고다니 다가 《은별이!》, 《예경이!》 하고 소리치 면서 유리한 득점기회를 마련하군 하였다. 그를 중심으로 11명이 일심동체가 되여 불사신처럼 싸웠다.

버

남조선팀과의 준결승경기때 제일 나어린 위정심선수까지 평시에 련마한 기술을 잘 살리면서 공격마당 오른쪽에서 공을 재치 있게 넘겨차기하여 리예경선수가 귀중한 동점꼴을 성공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윁남팀을 5:0으로 압승한 조별련맹전 첫 경기로부터 일본팀을 3:1로 통쾌하게 타승한 마지막결승경기까지 제 1 7차 아시 아경기대회 전과정에 주장 라은심선수는 이렇듯 당의 품속에서 자란 체육인당원답 게 언제나 한모습으로 불굴의 기수가 되여 팀의 앞장에서 용맹하게 싸웠다.

세상사람들이 경탄하는 조선녀자축구의 백절불굴의 정신력은 축구명수라는 개인 의 명예보다 팀의 승리를 더 귀중히 여기 고 어머니당과 조국에 한순간의 기쁨이라 도 더해드릴수 있다면 자기 한몸도 서슴 없이 바치려는 우리의 체육인녀병사들의 대중적영웅주의, 강의한 집단주의정신이 낮은것이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 며 2013년 동아시아컵녀자축구경기대 회에서 중국, 일본, 남조선팀들을 누르고 단 연 1등을 쟁취한 국가녀자축구종합팀 감 독, 선수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여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녀자 축구선수들과 감독들은 감사의 인사, 새로 운 승리의 맹세를 담은 편지를 올렸다. 그 편지를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전백승만을 떨치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너지축구선수들이 되라!》라는 참으 로 뜻깊은 친필을 새겨주시였다.

녀자축구선수 라은심의 소원은 이렇게 풀렸다.

인생에 한번밖에 없는 꽃같은 처녀시절 을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아낌없이 바치고 있는 너자축구선수들, 평화시기의 총포성 없는 전장과도 같은 국제경기무대에서 람 홍색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린 조국의 장한 딸들을 우리 당에서는 체육강국건설의 선 구자집단으로, 우리 시대 체육인들의 본보 기로 내세워주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 체육정책관철의 선구자집단에서 1번수가 되여 싸운 라은 심동무의 영웅메달은 말해주고있다.

우리의 장한 녀자축구선수들처럼 누구 나, 어디서나 백전백승만을 떨치자.

너도나도 백절불굴의 정신력으로 싸우고 또 싸워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반드시 우리 조선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로 만들자!

라은심선수는 책임감독의 민활한 지휘에 본사기자 오철룡

열 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안고 불별의 꽃 김정일화를 정성껏 키우고있다.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새로 나온 기록영화 《선군시대 공로자들》(3)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 는 기록영화 《선군시대 공로자 들》(3)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영화는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사회주의조 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빛내가고있는 공로자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주고있다. 혁명사적지관리사업을 위해 가족과 함께 충정을 바쳐가는 창성군 유평혁명사적지 강사 강

혜경, 우리 당이 시대의 참된 인 간전형으로 내세워준 이천군 신 당축산전문협동농장 선동원 박 부 룬 디 대 통 령 에 게

명경철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

사가 11월 27일 삐에르 은쿠룬

지자 부룬디공화국 대통령에게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김정은동지께서 삐에르 은쿠룬

지자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한 인사를 전하였다.

전달하였다.

연화, 자기 고장, 자기 일터를 남부럽지 않게 잘 꾸리는데 앞 장선 라선시 라진건물보수사업 소 지배인 정진철의 투쟁모습은 깊은 감동을 주고있다.

영화에서는 조국의 뿌리가 되 겠다는 인생관을 지니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자기 맡은 초소에서 성실하게 일하고있는 농촌관리일군과 리 진료소의 간호원, 평범한 교육 자와 녀성연구사의 참된 삶과 투쟁모습도 보여주고있다. 영화는 천만의 심장속에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

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지성원을 보내주신

김일성주석각하의 업적은

그이의 존함과 더불어 부룬디인

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자기

행

아프리카나라들에 사심없는

게 부탁하였다.

진

김정일애국주의를 뜨겁게 심어주 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참다운 애국자, 영웅의 대부대가 자라나고있음을 감동적 인 화폭들로 펼쳐보이고있다.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후

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 로서의 본분을 다해가는 공로자 들처럼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 자들이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가 아니라 애국의 열정과 끝없는 헌신으로 사회주의강성 국가건설과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도록 적극 고무하고있다.

수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일심 단결되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은 발전도상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부룬디는 조선과 국제무대에 서 긴밀히 협조할것이며 여러 분야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것이다.

부룬디정부와 인민은 조선인 민이 정의의 위업수행에서 반드 시 승리하리라고 굳게 확신하면 서 앞으로 보다 큰 진보가 이룩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조선중앙통신】

다음주에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입장 봉정

7일 9시부터 대성산체육단, 장산체육단, 홰불체육단, 평양 철도국체육단이 참가하는 짧은

주로속도빙상 남, 녀경기가 빙 상관에서 진행되게 된다. 오산덕상체육경기대회 빙상호

케이 1급 남, 녀경기가 10일부터 빙상관에서 벌어지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육 경 기

토론회에서 함경북도소아병원 외과 부과장 문동일동무의 론문

《형성부전구개보존형탈구정복 술에 의한 어린이선천성대퇴관 절랄구의 수술적치료에 대한 림 상적연구》는 지난 시기와는 전 혀 다른 새로운 형식의 수술방 법을 확립한것으로 하여 주목을 끌었다. 참가자들을 더욱 놀라게 한것은 이런 선진적인 수술방법 을 도급병원의료일군들이 완성

아닌 그들이 과연 어떻게 참가 자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새로운 수술방법을 개척할수 있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몇달전 평양에서는 제 1 6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

> 여야 합니다.» 법으로 진행하고있었다. 이 방법은 수술시간이 오래고

하여 내놓았다는것이였다. 중앙의 이름있는 의료집단도

《의사, 간호원을 비롯한 모 든 의료일군들이 혁명적동지 애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의 정신을 가지고 환자치료에

10여년만에 무르익은 정성의 함 경 북 도 소 아 병 원 최대의 정성을 쏟아붓도록 하

지난 시기 함경북도소아병원 에서는 선천적으로 대퇴관절이 탈구된 어린이들에 대한 수술을 골반 및 대퇴골을 절단하는 방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뼈를 골절 시킨것으로 하여 성장발육과정에 적지 않은 장애를 조성하였다. 바로 그래서 문동일동무와 과

의료집단은 여러 형태의 선천성 뼈 및 관절계통질병들을 치료해 온 지식과 경험에 토대하여 우 리 식의 새로운 치료방법을 확 립할것을 제기하였다. 스스로 연구과제를 맡아안은 이들은 어 려운 어린이정형외과령역을 한 치한치 톺아나갔다.

사색과 탐구가 거듭되는 속 에 여러가지 혁신적인 안들이

나왔다. 그러나 이렇다할 성과 가 없이 오랜 시일이 지나자 몇 몇 의료일군들은 동요하기 시 작하였다.

사실 매일 치료사업을 진행하 면서 새로운 수술방법을 탐구한 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 니였다. 문동일동무자신도 힘들었다.

승산없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는

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때마다 그를 채찍질하며 떠 밀어준것은 아버지의 모습이였 다. 그의 아버지 문국종은 전화 의 불길속에서도 대학에서 마음 껏 공부할수 있도록 크나큰 사 랑을 안겨준 당의 은덕을 언제 나 잊지 않고 과학연구활동을 줄기차게 벌려 수많은 환자들을 완치시켜주었고 우리 나라 정형

외과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

여한 인민의사이며 교수 박사였

자도 완쾌되지 못하고 병원문을 나서게 해서는 안된다는것이 그 의 지론이였다. 그는 늘 자식들 에게 의사가 환자들을 위하는 뜨거운 심장만 지니면 돌우에도 꽃을 피울수 있고 그 어떤 연구

> 버릇처럼 외우군 하였다. 자신을 다잡고 또다시 탐구의 날과 달을 이어가던 어느날 문 동일동무는 기발한 착상을 하게 되였다. 그것은 어린이들의 육 체적발육이 똑같지 않다는 점과 뼈마디들이 자라는 과정에 채 형성되지 못했던 비구도 자기의 형태를 갖출수 있다는 점이였 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발견

> 다. 어떤 경우에도 단 한명의 환

사업에서도 성공할수 있다고 입

이였다. 새로운 수술방법확립을 위한 돌파구를 열수 있는 귀중한 실 마리였다. 이렇게 되여 이들은

뼈를 절단하지 않고도 선천성대 퇴관절탈구를 수술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의료일군들 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수술후 유증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 기관절기능료법들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심화시켜나갔다. 1 0여년간에 걸치는 피타는 사 색과 탐구, 노력은 드디여 알찬 열매를 맺었다. 수술시간이 짧 아진것은 물론 수술후에도 환자 들속에서 합병증이 거의나 발견 되지 않았다.

그 나날에 문동일동무는 10 여건의 가치있는 의학과학기술 론문들을 발표하고 여러건의 새 기술도입증과 창의고안증을 받 았으며 자신뿐만아니라 과의료 일군들을 학위소유자로 키워내 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람 찬 길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 을 찾으며 이곳 의료일군들은 오늘도 정성의 열매들을 아름답 게 가꾸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옥별

2014년 전 국 농 업 과 학 기 술 성 과 전 시 발표회 【평양 12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2014

년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전시 및 발표회가 3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농업부문 과학연구, 교육기관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과 현장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 돐을 맞이한 뜻깊은 올해에 농업의 과학 화, 현대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에 서 이룩한 경험들을 소개하였다.

전시회에는 다수확품종의 알곡작물들과 남새들, 나노기술을 도입한 여러가지 비료 들, 농약들, 축산물생산을 늘이는데 이바 지한 과학기술자료들 등이 출품되였다. 농

작물육종분과, 농작물재배분과, 식물보호 분과, 토양비료분과, 남새, 공예, 잠업분 과, 수의축산분과로 나뉘여 열린 발표회에 는 120여건의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제 출되였다.

5일에 있은 페막식에서는 우수한 평가 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계영삼 농업과학원 원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 를 더 높이 발휘하여 당의 농업정책관철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알찬 열매들을 마 련함으로써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향 상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국가과학원 과학연구성과전시회 진행

【평양 12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국가 과학원창립 62돐기념 과학연구성과전시 회가 2일부터 5일까지 현지에서 진행되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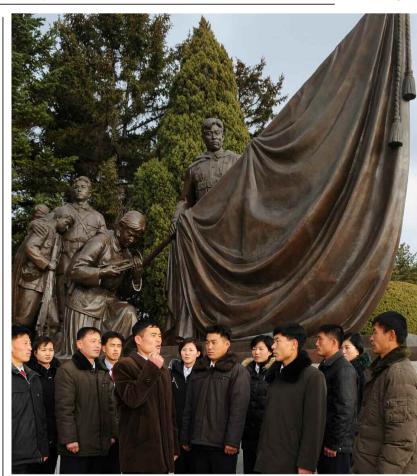
이번 전시회에는 당의 과학중시사상 과 최첨단돌파사상을 높이 받들고 국가 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들이 올 해 과학연구사업과 과학기술활동에서 이룩한 270여건의 성과자료들이 출품 되였다.

또한 년간에 집필출판된 과학기술도서 들 등이 단위별로 전시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열간압연공정현

트》, 《압착과자이적로보트》를 비롯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주체 화, 현대화, 과학화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데 이바지할 성과자료들이 참 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전시회를 계기로 참가자들은 성과와 경 험들을 서로 교환하였으며 과학자, 기술 자들에게 돌려주는 우리 당의 크나큰 사 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과학적재능과 열 정을 총폭발시킴으로써 더 많은 과학기술 성과들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열의 에 넘쳐있었다.

5일에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단 대화》, 《천지윤활유공장 윤활유포장로보 위들과 참가자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백 절불굴의 전위투사,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해갈 굳은 결의 에 넘쳐있다. —대성산혁명렬사릉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애국의 뜻 받들어 조국산천을 더욱 푸르게 하자 위대한 장군님

할 틀어쥐고나가야 산립복구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 을 잘하여 온 나라를 수림 화, 원립화하여야 합니다. 》 지금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

들은 전후복구건설시기 온 나 라가 떨쳐나 재더미를 털고 일 떠선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 이 총동원되여 산림복구전투 를 힘있게 벌리자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투적호 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조 터 영양단지생산, 나무모재배 국강산을 푸른 숲 우거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섰다.

얼마전 우리는 산림복구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문제를 놓 고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인 부상 김명철, 처장들인 림춘 철,리수명동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산림복구전투를 힘있 게 벌리자면 우선 어디에 힘을 넣어야 하는가.

부상 김명철: 산림복구전투 재배장, 원형분무삽목장을 꾸 를 벌려 짧은 기간에 온 나라의 산과 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나무모생산 을 적극 늘여야 한다.

일찌기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에 깊은 판심을 돌려오 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무 모를 키우는것은 수림화, 원림 화의 첫 공정이라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중앙양묘장을 일뗘 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 시였으며 몸소 현지에까지 나오시여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뜻을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양묘장들을 잘 꾸리고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 화, 집약화하는데 나무모생산 을 짧은 기간에 훨씬 늘일수 있 는 중요한 열쇠가 있다. 중앙양 묘장에서는 부식토생산으로부 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높 은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웠 다.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 화, 집약화를 훌륭히 실현함으 로써 같은 면적에서 종전에 비 해 나무모생산을 10여배로 늘이면서도 사름률을 95%이

상 보장하고있다. 또한 생산주 기를 6개월~1년정도 단축하 면서도 종자를 4 0%나 절약 하고있다. 경성, 정평, 구장군 과 순안구역의 양묘장을 비롯 한 많은 양묘장들에서도 야외 려놓고 튼튼한 나무모를 키워 내고있다.

나무모생산을 늘이는것과 함 께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키워 내야 한다. 가까운 년간에 온 나 라의 산과 들에 푸른 숲이 우거 지게 하자면 경제적가치가 있으 면서도 빨리 자라는 나무모를 생산하여야 한다. 그중의 하나 가 스트로브스소나무이다.이 나무는 소나무보다 빨리 곧추 자란다. 한해에 $50\sim60$ cm, 최고 1.2m까지 자라는데 용 재로서의 리용가치가 높다. 또

한 창성이깔나무, 평양단풍나무

도 심으면 몇년안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수 있는 수종이 좋 은 나무이다.

기자:현시기 산림조성에서 심 은 나무의 사름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장 리수명:옳은 말이다. 해 마다 아무리 많은 나무를 심는 다고 하여도 사름률을 높이지 못하면 품을 들인 보람이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무

심기실적을 몇그루의 나무를 심 었는가를 놓고 따질것이 아니라 심은 나무가 얼마나 살았는가 하는 사름률을 놓고 평가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나무모의 사름률을 높이자면

심을 때 뿌리가 상하지 않게 하 는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드러 난 나무모의 뿌리는 줄기나 잎 보다 보통 5~10배정도 빨리 마른다. 굵기가 2mm아래인 가 는 뿌리는 굵은 뿌리보다 2배 나 더 빨리 마른다. 특히 넓은잎 나무모보다 바늘잎나무모들의 뿌리가 더 쉽게 마르고 사름률 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잣나무. 창성이깔나무 등 바늘잎나무모 들의 뿌리가 상하지 않게 판리

를 잘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나무모 를 뜰 때 절대로 뿌리가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나무 모뿌리를 진흙물이나 닥풀우림 액같은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보관과 수송과정에 해빛이 나 바람을 맞지 않도록 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물에 푹 젖 은 북데기나 짚, 가랑잎같은것 을 일정한 두께로 퍼놓은 용기 에 나무모를 넣어 운반하여야

나무모영양단지에 의한 나무 심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 사 름률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 다. 나무모영양단지는 뿌리손상 을 막고 사름률을 높이는데서 아주 효과가 크므로 어디서나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나무모를 심은 다음에는 나무 가 죽지 않도록 관리사업을 책 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자: 산림복구전투에서 성 과를 거두자면 산림보호에도 큰 힘을 넣어야 하지 않겠는가.

처장 립춘철: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산림복구전투에 서 성과를 거두자면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할뿐만아니라 산림 보호이자 토지보호, 생태환경보 호, 경제보호사업이라는 관점밑 에 숲을 보호하고 감독통제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산림보호에서는 우선 심은 나무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나무를 심은 후 그것으로 그치 지 말고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 야 한다. 나무를 심은 첫해에 는 김을 잘 매주고 땅속의 물 기가 날아나지 않게 가랑잎이 나 판돌같은것으로 주변을 덮 어주는것이 좋다. 다음해에는 주변의 풀이나 잡판목을 뽑아 주어야 한다. 어린나무가 염소 나 소, 양 등 풀먹는집짐승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며 풀베 기를 할 때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산림을 보호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산불을 미리막는것 이다. 산불이 일어나게 되는 원 인은 여러가지이지만 크게 자 연적원인과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원인으로 갈라볼수 있다. 벼락이 칠 때 생기는 불꽃이나 바람이 세계 불 때 마른나무들 이 마찰되면서 불이 일어날수 도 있다. 세차게 타번지는 불길 로 하여 없던 바람도 생기게 되 는데 결과 불길이 수십m 지어 는 수km까지 퍼지면서 귀중한

황

0

0

산에 갈 때 인화성물질을 가 지고가지 말아야 하며 산속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산 림구역에 늘인 전선줄을 정비하 며 륜전기재들을 리용하여 작업 할 때에는 불꽃이 날리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산림을 조성할 때에는 산불막이선을 만들어야

산림을 태워버리게 된다.

하다. 병해충에 의한 산림의 피해 를 막아야 한다. 산림병해충예 찰사업을 강화하며 피해막이대 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약 뿌리기설비들을 적극 리용하며 물리기계적방법이나 생물학적 방법으로 병해충피해를 막아야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 과 근로자들은 가까운 년간에 온 나라의 산과 들을 푸른 숲 우 거진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 후 대들에게 물려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뜻을 높이 받들고 산림복구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조국산천 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가야

본사기자 윤용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북북히 자 기가 맡은 초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 름이 되여 조국의 재부를 늘여가는 애국자 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봉천군 가동리에 가면 관

봉이라고 불리우는 험한 산

이 있다. 20여년전만 해도

바위밖에 볼수 없던 산에 오

늘은 밤나무숲이 펼쳐졌고

사과와 복숭아, 감 등 갖가지

과일나무가 수천그루나 자라

고있다. 이 산에서 해마다 수

구나 보물산이라고 부른다.

천 많은 열매가 쏟아져나와 누

보 잡판목과 깎아지른 벼랑의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창조물이 그러 하듯이 푸른 숲에도 애국의 마음을 안고 숲 을 가꾼 주인공들이 있다.

봉천군에도 푸른 숲의 뿌리가 되고 밑거

들이 있다.

높이 받들고 그는 맡은 집 짐승사양관리를 하면서 해 마다 쉴참이나 여가시간을 리용하여 나무를 심었다. 벼 랑을 타면서 구뎅이를 파고 거름을 놓고 밤나무를 심자 니 얼마나 힘겨웠으라. 그는 심은 나무에 대한 보호관리

도 스스로 맡아하였다. 오로지 자기의 땀과 지 혜, 열정을 바쳐 후대들에게 고향땅의 푸른 숲을 넘겨주 려는 애국의 마음에서.

몇해전 《로동신문》에는 봉천군 광암리의 인적드문 → 산들에 수십정보의 밤나무 를 심어가꾼 한 제대군관의 애국적소행에 대한 이야기

택 한

심을 터놓았다.

알 아 주 건 말 건

가 실렸었다. 그 주인공이 당시 농장의 밤나무분조 분조장으로 일

大 에 하던 방준호동무였다. 지난 수십년간 누가 보건 말건 애국의 마음을 안고

밤나무숲을 가꾸어온 그는

스 스 로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봉천군산림경영소로 한 로인이 찾아왔다. 산림감 독원으로 일하다가 년로보

장을 받게 된 조용운로인 이였다. 그날 로인은 변함없이 당 의 수림화, 원림화방침을 판 철할 애국의 마음안고 년로 보장을 받았어도 읍지구의

산을 맡아 더 푸르게 할 결

변 함 없 는 위대한 장군님의 표창장을 수여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

이런 자랑찬 현실이 저절

2 0 여년전 쓸모없던 이

산에 애어린 밤나무모를 옮

기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

다. 당시 농장의 양판리공으

로서 산판을 메주밟듯 하던

4 0대의 신세순동무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 산을 황금

산, 보물산으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니였다. 그때로부터 또 여러해가 지났다.

이제는 방준호동무의 미 더운 동지, 전우가 되여 궂 은일, 어려운 일을 적극 도 와주고 뒤바라지를 해주던 사랑하는 안해와 딸이 곁에

당조직에서는 그의 제의

를 지지해주었다. 그의 가

족들도 조용운로인의 뒤를

따라섰다. 이때부터 로인

은 근 10정보의 산림조

성계획을 세우고 4정보의

잣나무림, 2정보의 수유

나무림, 1정보의 창성이

깔나무림과 왕밤나무림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단나

한 모 습 없다. 마음속상처가 누구보

다 큰 그였지만 심장속깊이 간직된 애국의 신념은 변함 이 없다.

생의 마지막걸음까지 푸른 숲에 바치겠다는 드 놀지 않는 결심을 안고

그는 오늘도 밤나무숲을 가꾸고 나날이 늘여가고 있다.

무, 파일나무들도 심고 가 꾸었다. 이 나날 조용운로인은

3만 5천그루의 나무와 2만 8천그루의 초본식물 을 심었으며 90여t의 각 종 열매를 따들여 경공업 공장들에 보내주었다.그 리고 여러t의 단나무열매 를 따서 군안의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에게도 보내주 었다.

특파기자 리 승 철

태천군산림경영 소 일군들과 근로 자들이 최근년간

나 무 모 생 산 에 서 혁신을 일으켜 도 적으로 자랑할만 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 비결은 일군들 이 당의 뜻대로 나무모생산의 과학화실현에 큰 힘을 넣은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중앙과 지방들에서 양묘 장들을 잘 꾸리고 나무모생 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하여 장군님께서 좋다고 평가하신 스트로브스소나무 와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한 빨리 자라고 경제적리용가 치가 큰 나무모들을 계단식 으로 많이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이 나무모생산의 과학 화실현에서 우선 중시한것은 그 에 필요한 조건을 잘 마련하는 것이였다.

몇해전 여기에 새로 임명되여 온 지배인은 단위실태를 료해하 는 과정에 한가지 사실에 주목 을 돌리게 되였다. 산림경영소 의 양묘장에는 일부 땅속물층이 높은 포전이 있는것이였다.이 런 포전에서는 뿌리썩음병방지 대책을 잘 세워야 나무모생산을 원만히 할수 있었다.

(토양을 떠난 나무모생산의 과학화에 대해 말할수 없다. 그 러므로 불리한 토양조건을 개선 하여야 비배관리사업도 은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지배인은 비

나무모생산의 학화에 힘 대 천 군 산 립 경 영 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배관리방법을 개선하기에 앞 서 토지개량을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주저하는 일군들도 있었다. 작업량이 방대하기때 문이였다.지배인은 이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절절하게 말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무 를 심고 가꾸는 일은 장기적 인 사업이며 품을 넣는것만큼 그 결실이 나타난다는데 대해 간平히 가르쳐주시였습

니다.》 일군들은 높은 애국적헌신 성을 발휘하여 토양조건부터 개선하여야 당의 뜻대로 나무 모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근로 섰다. 품을 들인 보람으로 뿌 리썩음병이 없어진 포전으로 되였다.

일군들은 이런 성과에 기초하 여 나무모생산의 모든 공정에서 과학화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 었다.

나무종자를 땅에 심는 시기를 앞당긴 사실을 보자. 지난 시기 이들은 4월에 나

무종자를 땅에 심었다. 그러다 보니 봄에 가물로 하여 나무모 의 전쟁으로 간주할데 대한 당 의 사름률이 높지 못했다. 그 의 뜻을 받들고 산림복구전투장 올해에는 3월에 나무종자를 심 기로 하였다.이들은 근로자들 에게 그 방법대로 하면 나무모 의 뿌리가 일찍 내려 가물을 능 자들과 함께 흙깔이에 떨쳐나 히 이겨낼수 있다는데 대해 원

리적으로 깊이 인 식시켜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 다. 그때 이들이 잘 한것은 나무모의

영양관리에도 동시에 힘을 넣은 것이였다. 진거름가루를 생산하 여 나무모사이에 묻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이 처럼 나무종자심는 시기를 앞당 기고 10여t의 가루거름을 땀 흘려 생산해낸 결과 올해 왕가 물속에서도 모든 포전에서 튼튼 한 나무모를 많이 키워내게 되

일군들은 산림복구를 자연과 장해주기 위해 생산의 과학화와 함께 공업화, 집약화수준을 끊 임없이 높이는데 박차를 가하고

본사기자 김성철

1 9 0 만 여 그 루 의 나무 Ю Н

어주었다.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산림조성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상원군에서 나무심기를 힘있

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나무심기 를 진행하는 군의 모든 기관, 기 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서 나무 심기계획을 옳바로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

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 서는 이번 가을철국토관리총동 원기간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서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

무림을 비롯한 산림조성사업을 근기있게 진행해온 군에서는 산 림조성을 위한 단계별목표를 정 확히 세우고 철저히 집행해나가 도록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뗘밀

군의 책임일군들이 가까운 년 간에 군의 모든 산들을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의 앞장에 섰다. 책임일군들은 자신들이 직접 군의 산들을 밟으면서 나 무를 심어야 할 면적과 적지적 종의 나무모수를 구체적으로 타 산하고 전망계획과 당면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산림조성계획을 직관화

하여 군의 모든 단위들에서 나

였다. 특히 여러해전부터 땔나 무심기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 였다. 올해 가을철국토판리총동원

> 기간에 온 군이 나무심기로 끓 어번졌다. 산림부문 일군들이 나무를 심는 현장들에 나가 나무심기 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잘 알려주며 나무심기에서 높

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하

였다.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모 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한그 루한그루의 나무를 정성껏 심

흑우리와 대천리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무심기에서 모범

로자들은 주변산들에 혼성림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력량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나무를 심었다. 군 원료기지사업소와 고치생산사 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한 사람같이 떨쳐나 나무심기에서 실적을 올리였다. 상원목장을 비롯한 다른 단위들에서도 올해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계획했던 나무심기과제를 수행

당의 웅대한 국토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나무심기에 한사 람같이 참가한 결과 가을철에 만도 군적으로 190만여그루 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두 었다.

하였다.

특파기자 김 천 일





지니고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신양군국토환경보호관리부에서-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심 방법

을 보이였다. 이곳 일군들과 근

나무모인 경우 영양단지를 리 용하면 여름과 가을에 식수를 하여도 사름률을 높일수 있다. 큰 나무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법을 리용하여 여 름철에 나무심기를 할수 있다. 우선 뿌리끊기를 하여 심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옮겨심으려고 하는 큰 나무의 뿌리를 미리 끊어주 어 잔뿌리들이 많이 나오게 하 여 심는 방법이다. 뿌리가 잘 내 리지 않는 수종들을 선택하여 봄, 가을에 뿌리끊기를 한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나무뜨기와 운

반, 심기에서 비용이 적게 들지 만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 또한 큰 나무를 즉시에 심는 방법이 있다. 다시말하여 뿌리 끊기를 비롯한 준비공정이 없이 나무를 떠서 심는 방법이다. 뿌 리끊기를 하지 못하였거나 사름 률이 높은 수종들에 적용한다. 이 방법으로 큰 나무를 옮겨심 자면 흙덩어리짓기와 포장, 흙 덩어리보호, 약제처리, 물 및 영

한 공정으로 나선다. 다음으로 용기에 나무를 심고 자래워 옮겨심는 방법이 있다.

양액분무, 해가림발설치가 중요

사름률이 매우 낮거나 특수한 수종들에 이 방법을 적용하는것 이 좋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 면 나무상자나 광주리, 부직포 또는 마대를 용기로 리용할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심으려는 나무의 키를 고려하여 용기의 직경이 4 0~1 5 0 cm정도 되게

준비해야 한다. 산림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나무심는 방법을 더욱 완성할 애국의 마 음안고 계속 힘찬 투쟁을 벌려 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옥

강동군인민병원 의료 일군들이 치료사업에서 좇은 성과를 거두어 군

내인민들로부터 우리 선

생님들이라고 정답게 불 리우고있다. 모든 과들이 다 그러 하지만 산부인과 의료일 군들에 대한 감사의 편 지가 계속 병원으로 날 아들고있다. 편지마다에 는 높은 의학과학기술을 소유하고 뜨거운 인간사 랑의 정으로 녀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글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타글 애쓰는 과의료일군

들에 대한 고마움이 그

득히 실려있다.

《의료일군들의 책임 성과 역할을 높이는데 서 기본은 그들이 환 자에게 정성을 다하도 록 하는것입니다.》

수십년간을 병원에서 일해오고있는 산부인과 과장 남영동무는 우리 당의 보건 정책을 앞장에서 받들며 첨단의 학과학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아 글타글 노력하는 의료일군이다.

0

그는 자신부터가 현대의학발 전의 추세에 맞게 높은 기술과 림상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사들의 기술실무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도 잘해 나가고있다.

이곳 의료일군들은 정상산도 에 의한 무통해산법은 물론 치 료과정에 제기되는 어려운 수술 도 원만히 진행할수 있게 림상 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mark>고 과의</mark> 의료일군들은 높은 기 술을 소유하는것과 함께 의료설 비들과 기구들을 갖추기 위한 사 업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들이 고심하여 마련해놓은 의료설비 들과 기구들은 녀성들의 건강증 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앞선 치료방법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속에 이들은 어렵 고 힘든 수술들을 자체로 원만 히 하고있으며 고려약에 의한 각

종 치료도 진행하고있다. 높은 의술을 지닌 의료일군들 의 지극한 정성은 지난 기간 환 자치료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한 비결이다.

몇해전 생명이 경각에 다달은 한 녀성이 병원에 실려왔을 때였다. 심한 쇼크상태에 빠져있는 환 자를 본 과장은 즉시 협의회를

열고 수술조직을 빈틈없이 짜고 들었다. 의사 허향단, 위룡철동 무를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자기 의 피까지 수혈해주며 긴장한 수 술전투를 벌리였다. 이들의 높은

침내 환자가 소생되였다. 그러나 이곳 의료일군들은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10 여일동안이나 낮과 밤이 따로 없 이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영양식품들도 마련하여주었다. 하 기에 환자와 가정에서는 이곳 의 료일군들을 잊지 못해하며 해마다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고있다.

기술과 지극한 정성에 의하여 마

이 녀성만이 아니다. 최근에 도 이들은 높은 기술과 지극한 <u>정성으로 광산의</u> 녀성로동자를 비롯하여 가망이 없다고 하던 환자들을 소생시켰다.

지금 이곳 병원 산부인과로는 강동군안의 녀성들뿐아니라 주 변군들에서까지 많은 녀성들이 찾아오고있다. 녀성들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

심을 돌리시며 평양산원에 사랑 의 보석주단을 펼쳐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새겨 안고 오늘도 이곳 과의 의료일 군들은 치료사업에 열정을 바쳐 가고있다.

어로전투장에서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

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 건제도에서 뚜렷이 나라나고 있습니다. 》 지난 11월 중순 리기춘,

김청락, 김두철동무를 비롯한 병원의 일군들은 보건성 일군인 김현웅동무와 함께 통천수산사 업소 포구로 나갔다. 날마다 혁신적성과를 이룩해

나가는 동해안의 여러 수산사 업소 어로공들의 열기띤 모습 을 바라보는 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뜨거웠다. 더 우기 불편한 몸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구로 돌아오자마자 또 다시 그날 저녁의 전투에 진입 할 준비를 서두르는 어로공들 의 모습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일군들은 즉시 원래 계획했 던 통천수산사업소 진료소에 서가 아니라 포구에 정박해있 는 배들에 올라 어로공들에 대 본사기자 한 현장치료를 진행할것을 결

심하였다. 병원에서는 보건성 일군들과의 런계밑에 환자치 료에 필요한 약들을 원만히 갖 추어놓는 한편 구급환자가 제 기되는 경우 긴급히 대책할수 있는 조건까지 충분히 마련해

군 인

놓았다. 그 다음날부터 과장 한계복동 무를 비롯한 병원의 의료일군들 은 동해안의 각지에서 모여와 이곳 어장에서 전투를 벌리고있 는 어로공들에 대한 현장치료를 진행하였다.

궂은날씨도 가리지 않고 온종 일 크고작은 배들을 오르내리며 검병검진을 진행하는 그들의 건 강이 넘려되여 때로 많은 어로 공들이 포구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통천수산사업 소 진료소에서의 치료를 요구했 지만 의료일군들은 그때마다 도 리머리를 저었다.

-어떻게 우리가 당의 사상판 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분초를 다투며 뛰는 어로공들에 게 사소한 불편이라도 줄수 있 겠는가. 여기가 바로 우리가 설 자리이다.

민 병 료 의료일군들은 이런 불같은 각

오를 안고 현장치료전투를 적극 적으로 벌려 짧은 기간에 소화 기계통질병, 호흡기계통질병 등 에 걸린 수백명의 어로공들에 대한 치료를 원만히 보장하여 그들이 물고기잡이에서 련일 혁 신적성과들을 이룩하도록 하는

벌 어 진

데 이바지하였다. 전투는 현장치료대원들속에 서만 벌어지지 않았다.

얼마전 병원으로는 여러명의 구급환자들이 실려왔다. 뜻밖 의 외상으로 중태에 빠진 그들 이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과 장 리철희동무를 비롯한 병원 의 외과 의료일군들은 퇴근을 잊고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리 였다.

동통으로 하여 잠 못 드는 어로공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1 0여일동안이나 순간도 침상 결을 떠나지 않은 그들의 모습 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 였다. 더우기 병원에 입원한지 며칠만에 의식을 차린 한 어로 공을 위해 영양가높은 음식을 해가지고나와 한술, 두술 떠넣 들의 모습은

어주며 정성을 다한 의사 리창 혁동무의 소행은 환자가 속한 어느 한 수산사업소 종업원들 의 전투적사기를 더욱 북돋아

주었다. 통천군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이

동해안의 여 러 수산사업 소 어로공들 에 대한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한 기간 은 얼마 되지

하지만 군 안의 주민들 에 대한 긴 장한 의료봉 사와 더불어 어로공들의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려 적극적 인 치료전투 를 벌린 통 천군인민병

현장의료봉사 사람들의 가슴속에 지울수 없 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 결같이 말하였다. 우리들의 생산 실적에는 의료일군들의 헌신의 자욱도 뜨겁게 깃들어있다고.

하기에 어로공들은 이렇게 한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방경 찬



길로 이끌어주시며 온 겨레를 참된 애국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값있는 삶, 사 람들의 추억속에,후세의 기억속에 남는 참된 삶을 원한다. 분렬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러한 삶은 과연 어떤것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사람 이 자기 조국도 민족도 모르고 개인 의 안락만 바라고 산다면 그러한 삶 은 결코 값있고 행복한 삶으로 될수 없다고 하시면서 사람은 자기 개인 의 리익보다 조국과 민족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조국과 민족을 위 한 애국의 길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 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고귀한 말씀 을 새겨안을수록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 하시고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통 일강국을 일뗘세우기 위해 애국의 한생을 바쳐오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어려온다.그이의 빛나는 애국의 한생은 온 겨레로 하 여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애국자 를 어버이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사

무치는 그리움속에 돌이켜보게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 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 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 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 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오늘도 당중앙위원회청사의 불밝 은 창가를 우러를 때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열정넘치신 태양의 그 모습이 어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불빛꺼질줄 모르던 집무실, 눈오는 날에도,비오고 바람부는 날에도 쪽잠과 줴기밥으로 끝없이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

만고풍상, 천신만고라는 말에도 다

반

0

人H

Ш

정

권

W

HH

담을수 없는 우리 장군님의 정력적 인 그 헌신의 나날들에 온 겨레가 하 나의 강토에서 행복과 번영을 누려 갈 그날을 그려보시며 온갖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그이의 숭고한 애국의 세계가 깃들어있다.

주체 7 4 (1985)년 9월 어느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귀중한 말씀 을 하시였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 고 밤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울 때 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야 하며 꿈 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을 꾸 어야 한다고, 우리의 모든 생각은 조 국통일과 잇닿아있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사업은 조국통일에로 지향시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 과 헌신은 위대한 장군님의 가장 숭고한 풍모이다. 그이의 심중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조국과 우리 민족, 하나의 조선과 하나의 겨레만이 자 리잡고있었다. 이런 확고한 신념, 의 지를 지니신 우리 장군님이시였기에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피눈물 의 그 나날, 조국이 시련을 겪지 않 으면 안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 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초강도강행군을 이어 가시였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내외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물리치 기 위한 치렬한 투쟁을 동반한다. 이 투쟁에서 우리 민족이 주도권을 틀 어쥐는가 못 쥐는가 하는것은 전적 으로 령도자가 어떤 신념과 배짱을 지녔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민족의 자주권과 관련되는 문제를 놓고 추 호의 양보나 후퇴도 있을수 없다는 것, 우리가 가는 앞길에 설사 넘을수 없는 칼벼랑이 막아서고 가시덤불이 가로놓인다 해도 자주통일을 위한 민족의 전진은 순간도 멈춰세울수 없다는것, 바로 이것이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조국통일의 길을 견인불 발의 의지로 헤쳐오신 우리 장군님 의 애국의 신념이였다.

감회도 새로운 주체 8 5 (1 9 96)년 11월 24일,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판문점시찰을 진행하신 이날은 온 겨레의 가슴마 다에 조국통일에 대한 사명감을 깊 이 심어주고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준 뜻깊은 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판문점 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세계전 쟁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한 력 사적인 장소이면서도 민족의 분렬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자신께서는 분렬 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 로 바꾸어놓으려는 념원에서 해마다 해내외의 수많은 통일운동가들이 모 여 통일행사를 벌리는 이곳에 조국 통일의 구성이신 수령님의 통일친필비 를 세우게 하였다고 뜨겁게 말씀 하시였다.이날에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그대로 겨레의 숙원 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려는 애국의 신념이 비낀 력사의 장엄한 선언이였다.

그이의 강인담대한 기상앞에 제국 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광풍과 반 통일도전은 걸음마다 산산이 짓부셔 졌으며 절세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는 최 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다. 온 겨 레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선군장정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누리에 떨치고 통일된 하나의 강토 와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애국애 족의 길이라는것을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진정 선군으로 민족의 존엄을 떨치시며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헌신의 로고속에 우리 겨레를 누구 보다 사랑하시며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민족으로 내세우시려고 그 토록 마음쓰신 그이의 숭고한 뜻이 엄마나 뜨겁게 깃들어있는것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절불굴의 의지로 이어가신 선군령도의 그 길 은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6. 1 5 공동선언, 1 0. 4 선언의 채택 이라는 민족사적사변을 안아왔다. 2000년 6월의 력사적인 평양상 봉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반 세기이상 지속되여온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 협력을 지 향하는 관계로 전환시키였다. 그 뜻 깊은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동선언은 어디까지나 통일지향적 이고 인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 을 안겨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 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 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을 선언의 앞조항에 밝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새 세기 민 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 언에 새겨진 명제 우리민족끼리에도 세상에 믿을것은 오직 자기 민족의 힘밖에 없다는 강한 민족자주사상, 부강조국건설도, 나라의 통일도 기어 이 민족자체의 힘으로 실현해야 한 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 가 담겨져있다. 하기에 당시 남조선 언론들은 한결같이 《민족의 드높은

계층 인민들속에서는 《최고의 애국자》、《최고의 민족주의자》、 《장군중의 으뜸장군》이라는 칭송 과 격정의 목소리들이 세차게 울려 나왔다. 정녕 민족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을 한몸에 안으시고 사랑하는 민족, 사랑

통일의지 과시》,《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제시》、《민족을 우선시하는

모습》등으로 대서특필하였으며 각

하는 겨레를 다시 하나로 합쳐주시기 위해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불태우신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지금껏 인류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위대하고 걸출한 최고의 애국자이시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 며 마련해주신 통일애국의 고귀한 전 통은 자주통일위업실현을 위한 오늘 의 투쟁에서 굳건한 토대로 되고있 다. 어버이장군님의 애국의 뜻이 어린 조국통일위업은 또 한분의 걸출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mark>김정은동</mark>지에 의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우리 다시 되새겨보자.불멸의 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 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에 맥박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져 오래동안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라고 하시며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분렬은 곧 매국이라고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의 력사가 어떻게 계승되 고있는가를 톡톡히 보았고 조국통일 위업의 전도가 얼마나 양양한가를 가 슴뿌듯이 절감할수 있었다.

그렇다.

오늘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백두산위인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우리 겨레는 그 어떤 시련과 난판 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찬란한 래일을 확신하 고있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의 뜻과 의지를 받들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어 주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따라 더 욱 억세게 전진해나갈것이며 그 길 에서 통일강국의 새 아침을 반드시 맞이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향미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간들의

운명이라

는것을 만

이다.

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인민들은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삶 을 누려가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끌없이 동경하

고있다. 이북바로알기회 회원 김진수 **미** -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이북에서는 말그대로 모든 📥 것이 민중을 위해 복무한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 라는 구호는 지금 이북사회 전 반에 관통되여있다. 정치와 경 제도 민중우선이고 시책과 혜 택도 민중위주이다. 교육과 보 건, 과학과 문학예술도 민중을 위한것이다.

서울에 사는 로동자 길명훈은 이북에서는 우리와 같은 로동자 와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민중 누구나가 다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서울 성동구의 한 녀성은 부 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훌륭한 궁전이 세워지고 외진 섬마을과 🗢 🛮 산골마을의 녀성들이 비행기에 🔽 실려 평양산원으로 후송되는 희 한한 현실은 민중중심의 세상에 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감 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산을 금치 못해하였다. 미래문제연구소 실장 리윤 아는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 이 썼다.

북은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

으로 떠받들리우는 신비의 황 홀경이다. 《세상에 부럼없어 라》, 이는 이북민중모두가 한목소리 로 터치고 한마음으로 노래하는 가 식없는 진정의 말이며 행복과 기쁨 의 상징어이다.

상상만으로도 그 신비경에 찬탄이 터 져나오거늘 그 신비의 세계에서 자라나 는 북의 어린이들이 어찌 세상에 부럼 없다고 세계를 향해 소리치지 않겠는 가. 정녕 이북은 나라전체가 행복의 요 람이며 기쁨의 동산이다.

한 언론인은 민중이 나라의 주인

끝없이 이 되여 평등한 복락을 누리는 이북 은 진정 복숭아꽃 만발한 무릉도원 에도 비기지 못할것이다, 따뜻한 봄

날의 화원처럼 인간의 리상이 꽃피 고 향기가 넘치는 이북이야말 로 세상사람들이 선망하는

> 태양조국이라고 격찬하였다. 정치학교수 김형민은 이런 제도를 떠나서는 살수 없기에 이북국민들은 자기 령도자를 어버이로, 당을 어머니라 부르 며 《그대 없이 나는 못살아》라 고 말하고있다고 격동된 심정

을 토로하였다. 부산의 한 회사원은 열번, 갈래 스무번을 다시 태여날수만 있 다면 꼭 이북과 같은 락원에서 태여나 살고싶다고 하였으며 로동자 김유성은 남녘겨레의 인생의 봄은 이북에서 오고있 ▮ 다고 언명하였다.

전직교수 주영철은 《이남민 중이 안겨살아야 할 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진정 우리 이남민중이 안 나는 진정 우리 이남민중이 안 겨살아야 할 품은 민중을 선생으 로, 하늘처럼 여기는 이북의 사 회주의제도라고 확신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리상사회를 오래동안 꿈꾸어온 이남민중은 통일조국의 그날을 안다거나카기사는 앞당겨나갈것이다.

《이남의 천대받고 압박받는 근로대중이 이 땅의 주인이 되 여 살자면 이북과 같은 정치가 실시되여야 한다. », 《이북과 같

은 세상을 위해서라면 모든 힘을 아 낌없이 바치고싶다. », 《로동자가 주 인이 된 세상을 안아오기 위해 끝까 지 투쟁하자.》…

남조선 각지에서 울려나오는 이러 한 목소리에는 위대한 태양의 따사 로운 품에 안겨 사회의 주인이 되여 보람찬 삶을 누릴 그날을 앞당겨오 려는 남녘인민들의 열망과 의지가 담 겨져있다.

【조선중앙통신】

정의를 심판하는 거꾸로

도적이 포도청간다는 말이 있다. 나쁜짓을 한자가 그것 을 숨기려고 도리여 뻔뻔스럽 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괴뢰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 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안 을 제출하고 이 당을 강제해산 하려고 악을 쓰고있는 남조선 보수패당의 망동은 신통히도 도적이 포도청가는 격이다.

얼마전 괴뢰헌법재판소에 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보수 패당의 정당해산심판청구와 관련한 최종변론이 있었다. 여기에 코를 들이민 괴뢰법무 부 장관은 《민족민주혁명당》 도 잘 알수 있다. 하다면 괴뢰 (민혁당)의 잔존세력이 통합 진보당을 장악하였다느니, 당 의 강령도 《북의 리념》과 흡 사하다느니 뭐니 하며 이 당 을 《종북》정당으로 몰아댔 다. 나중에는 작은 개미구멍 이 뚝전체를 무너뜨린다고 고 아대면서 이 당을 해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

그로부터 며칠후 하태경이 라는 《새누리당》의 악질보수 분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주체사상에 기반한 폭력혁명로선》을 교육하는 통 합진보당의 자료를 확보했다 고 하면서 어디서 주어온것인 지도 알수 없는 출처불명의 문건을 공개하였다.이자는 허위날조한 이 문건을 근거로 《폭력혁명이 통합진보당의 로 선》이라고 피대를 돋구면서 이 당에 대한 해산심판선고를 극구 부채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통합진 보당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 기면서 이 당을 한사코 말살 하려는 괴뢰보수패당의 집요 하고 비렬한 추태의 일단에 불과하다. 그것이 얼마나 날 강도적이며 터무니없는것인 가 하는것은 이 당의 원내대 표가 당국의 정당해산심판청 구는 민주주의에 대한 악랄한 역행이라고 단죄하면서 민족 의 화해협력과 조선반도의 평 화와 통일을 위한 통합진보당

의 노력은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고 선언한것을 통해서 집권세력이 무엇때문에 통합 진보당을 우리 공화국과 억지 로 련결시키며 기어이 강제해 산하려고 발광하고있는가 하 는것이다. 당)은 창당이래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통일을 위해 적

극 활동해왔다. 보수집권세력 의 반인민적악정과 독재통 다고 기염을 토했다. 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폭로 단죄하고 사회의 자주적발전 과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위 한 인민들의 투쟁의 앞장에는 통합진보당이 서있었다.이 당의 진보적인 활동은 인민을 등진 보수집권세력의 커다란 불안을 자아냈다. 민중우에 군림하여 독재통치로 권력을 유지해가는 보수패당은 비렬 하게도 저들의 반역정책에 반 기를 드는 통합진보당을 없애 버릴 흉심을 품었다. 특히 지 난 《대통령》선거당시 이 당대

표가 현 집권자에게 《당신을 락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출마 했다. 》고 쏘아붙인 이후 통합 진보당은 그야말로 괴뢰보수 패당의 주되는 정치적사냥감 이 되였다.

지난 2012년 통합진보 당내부에서 발생한 부정사건 통합진보당(이전 민주로동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은 당 장 해산》되여야 한다고 떠들

합진보당을 모략을 꾸며서라

을 구실로 드디여 탄압의 칼 을 빼든 괴뢰패당은 당사를 습격하고 당원명부를 압수한 후 살벌한 수사소동을 벌리면 서 이 당에 대한 부정적여론 을 조성하였는가 하면 《종북 세력이 〈국회〉를 장악》했다느 니, 《도대체 어디 정당인지 알 수 없다. 》느니 하고 모해하면 서 이 당소속 의원들을 《국 회》에서 제명하기 위해 피눈 이 되여 날뛰였다. 통합진보 당에 대한 탄압소동은 리석기 내란음모사건을 계기로 절정 에 달하였다. 파쑈광들은 통 합진보당소속 《국회》의원 리 석기가 《북에 추종하는 지하 혁명조직》을 결성한 후 《내란 음모를 위한 정연한 조직체 계》를 갖추었다느니, 《시설파 괴와 폭동을 음모》하였으며 《북의 혁명가요》를 불렀다느 니 뭐니 하면서 그를 비롯한 이 당관계자들을 체포구금하 고 재판에 회부하였다.이어

정당해산심판청구안을 괴뢰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통

면서 지난해말 이 당에 대한

도 《종북》의 딱지를 붙여 말 살하고 진보세력들을 정치무 대에서 제거함으로써 통치위 기를 수습하고 반역정책들을 무난히 추진하려는것이 바로 괴뢰보수패당의 속심이다. 수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 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 는 괴뢰들의 극악한 망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유 린하고 독재체제를 더한층 강 화하려는 용납 못할 파쑈적란 동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거짓이 드러나는것 은 시간문제이며 진실은 밝혀 소에서 있은 최종변론에서 피 뢰보수패당이 강제해산리유로 들고나온 《증거》들이라는것이 모두 허위와 모략, 날조로 일 관된것이라는것이 낱낱이 드 러났다. 《새누리당》이 공개한 통합진보당의 비밀교육교재라 는것을 놓고보아도 그런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다.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이라 는것도 마찬가지이다.지난 8월에 있은 이 사건에 대한 2심재판에서는 기본초점으로 되는 내란음모혐의에 대한 증 거가 불충분한것으로 하여 무

죄판결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집 권세력은 지금 통합진보당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살해버 리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있 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 해산소동이야말로 초보적인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

리도 없고 오로지 파쑈폭압과

반인민적악정이 란무하는 세 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인 남 조선의 험악한 실태를 여지없 이 폭로해주고있다.

만일 남조선에 정의가 있다 면 응당 정당활동의 자유를 여 지없이 말살하며 독재통치에 열을 올리는 시대착오적이며 파쑈적인 보수《정권》과 《새누 리당》부터 강제해산청구의 대 상이 되여야 한다. 당장 피고 석에 앉아 준엄한 심판을 받고 해체되여야 할것은 다름아닌 괴뢰보수패당이다. 그런데 그 들이 저들의 죄악을 감추려고 지기마련이다. 괴뢰헌법재판 도리여 진보정당을 범죄시하 며 강제해산하려고 무지막지

괴뢰패당이 진보정당에 대한

재미난 골에 범난다는 말 들이 쇠사슬에 묶인채 개우리 이 있다. 《종북세력척결》의 에 갇히여 인간으로서는 상상 간판밑에 괴뢰패당이 벌리고 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있 있는 통합진보당강제해산소 동은 그들자신의 파멸을 더 욱 앞당기는 결과밖에 가져 올것이 없다.

의 청소년들속에서 1 240

여명이 자살하였는데 이것은

자살과 관련한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한

다. 남조선은 로인자살률에서

괴뢰들은 지금 쉴새없이 그 무슨 《북인권》에 대해 주절대 고있다. 그것은 그야말로 병적 이라고 해야 할 정도이다. 하 다면 괴뢰패당이 그토록 광고 하는 저들의 인권이란 과연 어

떤것인가.

염전노예사건이란 불구자들을 을 거기에 빼돌린 사건이다.

자수용시설에서 그에 못지 않

더우기 놀라운것은 불구자

수용시설의 악한들이 저들의

만행을 은폐할 목적밑에 불구

자들의 신체적약점을 리용하

여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

일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훈련

이 포악무도하 사실이 알려

지자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너

무도 억이 막혀 땅을 치면서

까지 시킨 사실이다.

은 고통을 당한것이다.

다음의 사실은 그것이 황량 한 인권불모의 땅 남조선에서 리를 모두 빼앗기고 노예살이

지난 11월 27일 남조선

의 전라남도에 있는 한 불구자

수용시설에서 있은 반인륜적

만행이 사진자료들과 함께 폭

로되여 사회를 경악케 하였

다. 그것은 례사로운것이 아니

였다. 말그대로 사람들의 상상

을 초월하는 야만행위였다. 불

구자들을 개와 함께 우리에 가

알려진데 의하면 포로수용

소와 같은 이 시설에서는 불구

자들에게 벌을 가한다고 하면

서 그들의 몸을 쇠사슬로 묶고

개우리에 넣어 참을수 없는 모

욕과 육체적고통을 주군 하였

다. 이 얼마나 잔인한짓인가.

사회적으로 응당 관심과 도

움의 대상이 되여야 할 불구자

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그야

알려진데 의하면 이 치떨리

말로 반인륜적인 고문이다.

두고 쇠사슬로 묶어놓았던것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돈벌이 를 하던 어느 한 소금밭주인놈 이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는것 이 두려워 불구자수용시설의 우두머리들을 매수하여 그들

소금밭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

해 시급히 조사하고 마땅한 처 벌을 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

그러나 현지 괴뢰행정기관패 거리들은 《할 일이 많아서 가볼 수 없》다고 나자빠졌는가 하면 불구자시설책임자가 얼마나 힘 들겠는가고 오히려 범죄자들을 비호두둔까지 하면서 그 몸서

리치는 인 ;-- ◇ 쇠사슬에 묶이고 개우리에 갇힌 ◇ 권유린만 행범죄를 숨겨왔다

고 한다.

를 강요당한 불구자들이 불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 계에서는 썩어빠진 사회현실을

> 당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개탄하면서 불구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악행을 조장시킨 괴뢰

이다. 오늘 인류는 중세기의 암흑 천지, 인권동토대를 남조선에 서 현실로 볼수 있다. 쇠사슬 에 묶이고 개우리에 갇힌 남조 선의 인권실태를.

본사기자 리효진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 상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1일 남조선의 《보안법》폐지국민련대와 민 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서울에 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안 법》에 의한 인권유린실태를 폭로하였다.

단체들은 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리유만으로 인간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는것이 오늘의 남 조선현실이라고 개탄하였다.

현 《정권》이 정보원을 비롯 한 불법선거조작에 가담한자 들을 은페시키고 《안보》라는 미명하에 《종북소동》을 벌리 고있다고 규탄하였다.

현 《정권》하에서 조작된 통

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 서울

시공무원간첩사건 등은 전형

적인 《보안법》사건들이라고 비난하였다. 내란음모가 없었다는 판결 이 보여주듯이 통합진보당 내 란음모사건은 당국이 없는 사 실을 날조하여 《종북몰이》에 악용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정보원의 모략날조행위가

낱낱이 밝혀졌는데도 관련자

어디에선가 또 새로운 조작사 있다고 규탄하였다.

하나의 리유로 《친북》, 《종북 표현물》로 몰려 삭제를 강요 당한 글과 편집물들은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종북몰이》의 대상은 날이

북과 관련된 정보라는 단

들은 처벌받기는커녕 지금도 갈수록 확대되고 정치적반대자 는 어김없이 《종북》으로 되고있 건을 만들어낼 꿍꿍이를 하고 다고 하면서 《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조하였다.

결요 정구 책하 이 여 회 와 쟁 **조치 해재**히고 남편제 정희 91

남조선에서 자살은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일상적으로 보 거나 듣게 되는 대단히 례사 롭고 보편적인 일로 되고있 다. 하루밤을 자고나면 다리나 어느 집에서 어떤 사람이 자 살했다는 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오고 이것은 자신들의 생 활처지를 놓고 비관에 빠져있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상 는 또 다른 사람들을 자살의 대는 인간의 기본권리를 짓밟 길로 떠밀고있다. 여기에는 늙 는 《보안법》이라고 단체들은 은이와 젊은이, 사무원과 로동 자는 물론이고 나어린 초등학 【조선중앙통신】 교학생과 가정주부들에 이르 기까지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이 없다.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의 한 아빠트지하에서는 세방살이로 근근히 연명해오던 한 녀성이 생을 포기하고 두 딸과 함께 사 람 못살 남조선사회를 저주하 며 목숨을 끊었다. 돌봐줄 사람 이 없어 고독하게 살다가 끝내 독약을 먹고 자살한 칠순이 된 할머니,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 여오르는 학비를 마련할수 없 어 배움의 꿈을 버리고 세상을

이러한 실례를 다 꼽자면 끝이 없다. 서울시만 놓고보아도 지난

하직한 녀대학생…

민

들

하게 달려드는것이야말로 모 든것이 거꾸로 된 썩어빠진 남 조선사회의 비극이 아닐수 없 다.그러니 어찌 도적이 포도 청간다고 조소하지 않을수 있 겠는가.

강제해산소동으로 민심의 이목 을 딴데로 돌리고 《정권》안보를 실현해보려고 하지만 그런 술 책은 통할수 없다. 그것은 《유 신》독재의 파쑈적기질을 그대 로 물려받은 저들의 흉악한 정 체만을 더욱 드러내놓고 민심 의 분노를 고조시킬뿐이다.

는 악행을 당한 사람들은 염전

본사기자 심 철 영 노예사건의 피해자들이였다. 《자살지옥》 의

도 세계적으로 첫손가락에 꼽 히고있다. 자살사건이 꼬리를 물고있 어 세계적인 망신거리로 되고 있는데 대해 창피스러움을 느 꼈던지 괴뢰패당이 그 무슨 《자살예방협회》라는 기구까지 만들어놓고 자살을 막아보려 하고있지만 사태는 조금도 개 선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기

록적인 속도로 계속 늘어만 가

고있다. 다르고 나이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어째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 여 그것은 인민의 의사와 리 익을 반역하는 통치배들이 살판치는 남조선이야말로 사 람들의 꿈과 희망을 깡그리 빼앗고 초보적인 생존권조차 보장해주지 않고있는 세계최

무슨 《국민행복시대》니, 《민 생정부》니 하고 떠들었지만 났다. 현장에서는 《생활고로 그것은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 기 위한 한갖 기만이였다. 현 괴뢰집권세력이 인민들의 생 존권보장을 위해 해놓은 일이 란 하나도 없다. 실례로 그들 이 가계부채문제를 비롯한 인 민들의 경제적어려움을 해결 하고 일자리를 확대할것처럼 놀아대면서 민생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듯이 냄새를 피워 댔지만 그것은 빈말에 불과한 것이였다. 지금 남조선에 자 선단체가 대주는 한끼 식사로 하다면 남조선에서 직업도 겨우 연명하는 최극빈층세대 와 하루벌이로 생계를 지탱하 는 빈민층, 점심을 굶는 어린 이들이 수없이 많은 사실도 그것을 증명하여주고있다. 이 런 고달픈 삶을 이어가는 사 -람들이 종당에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는것은 너무도 명백

인천에서 벌어진 자살참극 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얼마 해에 1 0대부터 3 0대사이 악의 인권유린지대이기때문 전 남조선의 인천에서는 남편

하다.

오명을 벗을수 있는기 과 안해, 1 2살 난 딸자식을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그 포함한 온 가족이 탄불을 피 워놓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

힘들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 서 발견된다면 응급처치는 하 슬프지 않다. 》는 문구가 적힌 딸의 유서가 발견되였다. 이들이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들고 산다는 그자체가 고통 스러웠으면 발견되여도 제발 죽게 해달라는 유서까지 남기 였겠는가. 삶과 죽음이란 무엇 인지도 모르는 철부지소녀, 죽 음이라는 말보다 앞으로의 생 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여 야 할 12살 어린 소녀까지 도 자살참극의 희생물로 만드 는것이 바로 몸서리치는 남조

선사회이다. 망원인분석자료에 의하면 1 0대, 2 0대, 3 0대의 첫째가는 사망원인이 자살이며

그 근원은 경제적빈곤에 의한 극심한 생활고였다. 괴뢰경찰 청도 자살자들의 유서와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을 분석한 결 과 경제적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 다. 결국 특권족속들의 리익만 을 대변하며 근로인민들에게서 지 말고 그냥 떠날수 있게 해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자비하 달라.》는 안해의 유서와 《우 게 빼앗아 그들에게 참기 어려 리 가족이 함께 있을것이기에 운 생활상고통을 강요한 괴뢰 보수패당이 세계최악의 자살사 태를 빚어내고있는 용납 못할 살인마들인것이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사회 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제기 되는 자살사태의 책임은 빈 **굔에 시달리는 사회적취약계** 층을 외면하는 당국에 있다 고 하면서 그 해결을 요구하 고있지만 그것이 반역패당에 게는 소귀에 경읽기나 다름 이 없다.

근로인민들의 등껍질을 벗 겨 배를 채우고 권력을 유지 남조선의 보험개발원이 조 해가는 반역통치배들이 권력 사발표한 2013년 4월부 의 자리에 틀고앉아있는 남조 터 2014년 3월까지의 사 선은 언제 가도 세계최악의 인 권유린지대, 《자살지옥》의 오 명을 벗을수 없다.

본사기자 리성호